夕刊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權昌達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比律賓上院이 獨立案否決

一

七日 마니라發特電에 依하면 比律賓上院에서는 比島獨立案의 最後的審議를 行한結果 贊否兩論이 沸騰하여젓스나 結局 十五對四의 大差로 獨立案이 否決되엿다한다。

比律賓은 獨立식히기로米國上下議院에서 이미可決한 本問題에對하야 比島人이 本心으로 渴望하고잇던 그들로組織된 比律賓議院에서 이것을 反對否決하엿다는 消息은 一聞 理解하기어렵는 點이 잇슴은 勿論이다。 그러나 獨立을爲하야 奮鬪하엿고 獨立되기를 渴望하는 그들이 獨立案을 否決한 裡面에는 그에相當한 理由가잇섯슬것도 勿論이다。

그러면 그理解하기어렵는幕後에는 무어이잇스며 比島上院이 此를否決한理由는 무엇인가?

二

一九三二年四月四日 米國下院에서는 下院屬領委員長 파ー라헤어氏의 比島獨立案을可決通過식혓는대 그內容을 要約하면 (一) 比島共和國建設日부터起算하야 八個年에米國은 比島에서 主權을撤回함 (二) 右過渡期中 比島人及比島重要輸出品의 아메리카入國에는 制限을附함 (三) 比島共和國憲法制定會議召集의 權限을附與함 (四)米國의判斷에依하야 比律賓群島의 陸海軍根據地及其他地點을 占據하는 特權을 保留함 等等인데 本案은 民主黨側의 策戰이 成功되야 三百六票對四十七票라는 壓倒的多數로 下院을通過하엿다。

同十二月十二日 米國上院은 下院에서廻附된 比島獨立案에 對하야 修正案을 可決햇스나 今年一月十七日에와서 후ー버大統領의 反對에不拘하고 上下院折衝의 比島獨立案이 通過되엿는데 『準備』的過渡期間은 十個年으로되엿다。

三

아메리카가 比律賓을獨立식힌다는말은 一八九六年 米國의 同島主權을 獲得하던 當時부터이다。 그러나 이것이 具體化하고 法文化하기는 一九一六年 윌손大統領時의 所謂『쫀쓰法案』이다。 同法案은 그總論中에 比律賓이 鞏固한政府를 樹立維持할수잇게되면『比島獨立許可는米國國民의 傳統的 目的이다』라고 明示되야잇다。

그러나 그後 共和黨政府의 出現에딸아 米國의 對比島政策은 高壓的으로轉換되엿던바 最近三四年以來 比島獨立問題에對한 米國社會輿論은 다시 轉換을보게되야 結局 上下院獨立案通過에까지 情勢는 變遷되엿다。

四

如斯히 米國社會輿論이 急轉하게된 實情은 勿論 比島人의 猛烈한 獨立運動에 基因함이 아니라하기는 어렵지만 그보다도 더重要한原因은 近年에激烈하여진 米國人의 有色人種排斥과現下當面하고잇는 未曾有의經濟恐慌이라할것이다。

一九二四年에通過된 移民法에 依하야 有色人種의 米國入國은 完全히防止되엿슴에 不拘하고 每年五千名假量의 比島人(領地關係로)만은 排斥치 못하고잇다。 뿐만안이라 現下 不景氣에 呻吟하는 米國農民은 比島農産物 特히 糖의無稅輸入에 적지안은 打擊을맛게되얏스므로 이가튼 經濟的理由로서 比島獨立을 贊成하게 된것이라。

萬若 米國에서比島를完全히 獨立식힌다면 如上한理由가잇다하드래도 比島는아모不平이 업슬것이다。 그러나 米國의 目的은 「名義上獨立」을 식혀노코 比島人入國을 防止하며 比島品輸入에는 高率關稅를賦課하는同時에 米國品은 比島에自由로드려가게하며 其他軍事上必要地域等 米國에 有利한 온갓特權을保留하야 專擅的으로 搾取하려는데잇다。

이러한 背信的條件下에 比島가獨立된다면 比島人은 「獨立이라는」虛名은 엇게된다하드래도 經濟的地盤을 빼앗기게될뿐안이라 米國陸海軍이 駐屯하는以上 自然內政干涉에까지 나가게될것이니 그結果는 比島人의 生活은 現在以上으로 疲弊식힐것은 昨今큐바의 實情에비추어 明瞭한일이다。

이러한意味에서 이番比島上院의 獨立案을 否決한것이라 면그理由를諒解할것이다。

國策一、二元論對立遂尖銳化

五相會議前途에 重大事態豫想

『孤立外交』와『平和外交』의衝突 軍部、藏外相固執不讓

荒木陸相

高橋藏相

廣田外相

【電通東京電話】 五相會議에서는既報와如히 藏相、外相對陸海兩相의對立을보앗는바 그內容은要컨대 藏相外相의國防工作、平和外交工作二元論에對하야 陸海軍兩相은國際協調는 가장 希望하는바이나 國際聯盟脫退 滿洲國承認 一九三六年의海軍會議 世界各國의國家主義經濟블럭等을判斷할時 日本의客觀的情勢는 孤立外交를 覺悟치안으면안되는形便에잇다 그리고 孤立外交를覺悟하는以上 이覺悟를貫徹할수잇는 準備는當然必要하다고 一見正反對의主張을가저서 兩者相讓치안는것이 漸次明瞭하게되는것이다 이리하는兩者의主張이 너무도 明瞭히 懸隔한以上 妥協互讓은 容易치안코 荒木陸相으로서도 絕對로 一步도退할수업는 立場에잇는關係上 五相會議에서의 軍部兩相의 主張이萬一 拒否되든지 或은 甚히遠曲된境遇 軍部大臣對政府의關係上에 重大한 事態의發生을몰빗게업는窮地에잇다고 觀測하게되엿다

內閣運命左右될 陸、外相意見合致如何

軍部와外務省의主張

【聯合東京電話】 現內閣의國策의根本을삼는 外交國防國策의樹立은 五省會議에 審議되는바 荒木陸相과 廣田外相과의間에 全面的一致點의發見如何는現內閣의運命如何에多大한波紋을及할듯이傳하는바眞相은如左히陸軍對外務의 根本的意見의對立이 어떤程度까지緩和될可能性을 認하게되엇스므로 五省會議도今後二、三回의會合으로써急速히決定을보기로된模樣이다

▲外務省의見解

廣田外相은就任以來 外交와國防과는併行하야 國防의平時戰略化를 唯一絕對의國策으로삼는바이 演繹的結論으로서 먼저軍部와緊密한連繫下에 對露對米關係를 樹立하려하는바對露關係에잇서서는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기에는 現在의 形便上軍部의主張하는無條件的妥協反對로 至難하나抗爭하기에는 時期尙早임으로 먼저軍部와妥協하야 不可侵條約締結外지는가지아으나目下懸案으로된唯一의重大問題인北鐵買收의件은至急히解決하야對露關係의漸進的協定을圖한나對米關係에잇어서는 太平洋平和保證協定을締結하야日米關係의平和的關節을圖하야 이리하야徐徐히演出外交의根本原則을貫徹하기에 努力한다

▲軍部側의主張

陸軍側으로서는日本과根本的主張으로 相容이되지안는蘇聯邦과의無條件妥協과가튼것은할수업는바이다 쏘베트聯邦과의間에緊張狀態를招來할은 時를得치못하얏슴으로 日蘇兩國間의關係를全面的으로保하야將來의點에備하는것은外務側과 充分히意見의一致를본바다 海軍側으로서는 來一九三五年의第二次 위싱톤會議에臨하야 日本은 權外的으로 國防의自主的決定을 主張할이當然하니 特히 滿洲國의生産으로極東에對한 日本의地位는 매우 重大化한 實情에鑑하야 海軍力을 對米對等으로 要求할든當然하다 이點에 對하야는外務當局도 全然 同意한다、但 現下의 緊張한日米兩國關係를 打開하기위하야 必要로하는 日米平和保證의 政治的協定을 成立함에는 海軍側은何等反對치안으므로서 外務海軍雙方의 主張은 充分히 接近할 수잇는바다

樞府軍部를招待 重大外交懇談

外交關係者會議

【聯合東京電話】 現下의外交國策決定問題는目下五相會議에上程되여 外務軍部間에全面的對立을現出하야 其歸趨如何는現內閣의運命을左右하는것으로 자못重大視되고잇는바 廣田外相은當面의尖銳化한外交國策問題를有利히 展開하기爲하야七日午後六時부터 外務次官官舍에外交關係者의重大會議를開하고 樞密院副議長平沼騏一郞男 高橋軍令部次長 古莊參謀本部第一部長 河田拓務次官 樞密顧問官 水町袈裟六氏 元伊太利大使 秋月左都夫氏 重光外務次官을 招待하야午後十時半에至하도록長時間에亘한懇談會를開하얏는바 同夜의會議內容은極秘에附하고잇스나 對下外交非常時에處하야帝國의立場으로가장合理的으로 導하기爲하야軍部와 連繫를取하고歐州의危機를回避하야外平和的으로 初期의目的을達成할方策에 關하야協議한듯하며今後의推移는자못重大視된다

植民地官吏들의 特別手當廢止案

三日定例閣議에서 齋藤首相으로부터 官吏中 各委員會의委員을兼任하야 그手當을주는것은 制限할것 年度末 各省剩餘金을 官吏의手當으로주는것은 制限乃至廢止할것 植民地官吏의特別手當은 廢止할것等提案에對하야 諮問한바 各閣僚도 모도다異議업사 首相의提案을同意하얏나。 植民地官吏에게는 加俸이라는名目아래 그俸給의四割乃至六割의手當을 더주어왓든바 [illegible]의緊縮政策當時 그削減이論議되다가 減俸反對의大勢아래 하지부지된것이나 그斷行與否는 植民地財政上 重大한影響을미칠것이라 자못注目된다。

轉向囚人特別待遇

日本內에잇서 思想囚人의懷柔으로 轉向者에對한優遇는 이미만흔例를보이엇지만 朝鮮에는아즉도 그用例가廣汎치못햇더니 今番刑務所長會議에서 轉向囚人의特別待遇를 決議하야 未決囚에게는 不起訴 起訴猶豫等을行하는同時 旣囚에게는 假出獄의特典을보일뿐이아니라 獄中에잇서서도 溫房裝置와러되오等을設備해주는 것으로 그擁護策에힘쓰리라고 한다

不正舍音取締發令

舍音이나 農監가튼 不在地主의權力을빌어서 餘地업서小作人등을 虐使함으로 그로말미암아 일어나는 小作爭議도 實로적지안한것은 事實이어니와 비록小作調停令이 實施되야잇다고 하지만은 小作人의 그와가튼 虐使를 防止할길이 업기때문에 總督府當局에서는 農村問題의 重大性에 비치어서 社會政策的見地에서 不正舍音 取締를 發令하얏다고한다

米穀問題의波紋

減段問題를노코 農林 拓務兩省은 서로意見을 달리하고 잇는데나가 軍部로부터는 國防上으로보아 이들모양이며 그와同時에 朝鮮에잇서서는 減段을不拘코 産米增殖計劃을 그대로 進行하랴 또는減段과의뭇에 斷然中止하라等 아모런牢定이업서서 米穀問題의前途는 아즉도逆睹를 許치안는바이잇다

陸海相增稅主張

國策決定을爲한 五相會議는 六日首相官邸에서 第二次會議를 열엇는데 그席上에서 荒木陸相 大角海相은 斷然히增稅를行하야 非常時局에 備하라고 主張한데對하야 高橋藏相으로부터 國防費調達을爲하야 增稅를行하는것은 相當히考慮할것이라고 대답하얏다고하니 增稅問題에잇서 陸海兩相과藏相은서로 對立을免치못할것이라고보이는同時 首相의裁定도 그다지容易치못하리라고 豫想된다。

돌프스首相被擊

三日午後墺地利 首相돌프스氏는 議會에서나와 政治集會에가려고 自動車에 오르려할 지음 突然어떤靑年으로부터二發의射擊을當하얏스나 모도다 致命傷이 아니엇든만큼生命에는關係가 업섯다고하며 그 犯人은나치스黨員으로서 돌프스氏의反나치스的 獨裁를憎惡함에말미암은것이나아닌가고推測된다。

玖馬大統領被擊

二日 내쇼날 호텔을根據로하고頑强히反抗하든 反革命派將校團과터부터 交火한結果猛然한市街戰이열리엇섯스나 竟將校團은 戰敗되야降服하기에 이르럿다고하는데 當日夜 쌍、말틴大統領이 裝甲自動車로市街를巡視中 三十發以上手榴彈의狙擊을바덧다고하는데大統領은 조금도受傷을하지안햇다고하나 그만큼人心이 흉흉한 모양이다

獨逸의新軍縮案

駐英及駐伊의獨逸大使는 英米佛三國案에關한回答을手交하엿는데 그內容은刪開하면 軍備國際管理案에對한獨逸의受諾不可能을 表明한것이라고하며 또或은獨逸로부터 새로운提案을 軍縮會議에 對하야 提出한것이나아닌가도 推測된다고한다。

小作農米買上等 農村救濟策建議

陸相이首、藏兩相에게

【聯合東京電話】 荒木陸相은 齋藤首相 高橋藏相에게對하야 現下의 農村不況을 救濟하기 爲하야는 小作農으로부터本年度米를 買入할것이란 重大獻策을하엿는데 陸相의 根本案으로서 農村救濟의 如左한 意向을가젓다

一、公定最低米價의決定
一、農村窮迫救濟의 一方法으로서 山地三百萬町步를買入하야牧畜을 行케하고이에依하야堆肥를 造하야肥料를安價로하게함
一、小作農을 自作農으로하기爲하야 補助를與한다
一、農村을 救濟하기爲하야政府에서 貸與하는金額에對한 利子等을 擧하엿다

減段案前途多難

正租貯藏案은分離審議 今週中에最後決定

【電通東京電話】 減反案과正租貯藏案에 對하야는農林、拓務兩省間에서 大略技術的審議를終하고 이에基하야 兩者共히 兩案의 解決에對하야 協議를進하기로되엇는데 그結果의折衝이 行할터이다 그러나 最後를待하야 다시兩省間에 移出米許可制의 移動米課稅에對하야 農林、拓務兩省間에 根本的 對立이잇는우에 軍部政黨方面의 減反案에 對한反對論이 擡頭하얏고 또九千萬圓이란 補償金支出을 要함으로 大藏省이 承認할지도疑問임으로 減反案의 將來는相當히多難을豫想한다 그러하야 農林省에서는 本年産米의 出廻期를 압둔現在로 審議를急히할 必要에迫히고도 減反案에對하야는 拓務省과의 間에相當한 議論이 起할것으로 豫想되므로 正租貯藏案은全然이것과分離하야 速히審議를 行하야今月末外지에 成案하기로되엇다 即正租貯藏案에對하야는倉庫의 建設과 朝鮮에서의 正租貯藏具體化의 方法인바 倉庫建設에 對하야는農者預金部運用委員會에서 決定을보며 本年朝鮮各 三千萬圓의米穀資金並 中央金庫融資五千萬圓의米穀資金 流用으로 倉庫의 建設費에 充當할便法을講究할것으로觀測한다 又朝鮮의正租貯藏案의具體案에 對하야는 目下그 促進을拓務省에 對하야交涉中이므로今週中에는 後藤永井兩相이會見하야 正租貯藏案의最後的決定을 보게될것으로觀測된다

比律賓上院에서 獨立案을拒否

米國의實質的羈絆不脫理由 二日間大論戰結果

【聯合馬尼刺七日發】 比律賓上院은六日比島獨立法案의 最終的審議를行한바 贊否의議論이沸騰하야 容易히決定하지못하다가六日深夜로부터 七日새벽外지 一大論戰이展開되얏는데 七日午前五時에至하야 採決한結果十五票對四票로獨立法案을拒否하기로決定되얏다

【聯合馬尼刺七日發】 比島上院은드듸어 同島獨立法案을拒否하기로 決定하얏는데右獨立法案은十個年의試驗期間後比島에獨立을 附與한다는것이骨子로서 「후ー버ー」前大統領의拒否에도不拘하고 一九三三年一月十七日 再次亞米利加本國聯邦上院을通過한것이다 同法案의成立은一個年以內에 比島議會가同案을受諾하면十個年後에比島는亞米利加政府의羈絆을脫하야「比律賓聯邦」으로 東洋에서一個獨立國의列에서게될것인데 同法案은獨立後에도 亞米利加政府가比島에海軍根據地를가질것等條件으로할것으로 亞米利加에對한比島移民의 比率도減少되고또亞米利加와比島間의通商關係等이改正되지못하야 實質的으로亞米利加의 束縛을受하게될것으로上院의拒否를보게된것이다

貴族院의見解

【電通東京電話】 貴族院에서는 來年度豫算編成을 압두고 行하는 五相會議를 日本의非常時에 對處할 國策의 大綱幹이 決定될것으로서 그成否를 重視하는바 五相會議의前途에 關하야 如左한見解를갓고잇다

五相會議는一九三六年 即「위싱톤」條約 론돈條約의 廢棄하는 非常時國策의 大方針을 決定하는데에 打開를 目標로한 五相會議에서 荒木、大角兩相이 國防第一主義를强調함에 對하야 廣田外相은平和的 外交手段에 依하야 非常時局을 打開할餘地가잇음을 主張하야 高橋藏相도外相의 意見을支持한것은 極히重大視할것이다 國際情勢가 今日과가티 紛糾한때에 東洋平和의維持를 擔當한日本의 立場으로서 有事할時에 外侮를受치안는 足할수는업다고러므로 國防의 軍備를 充實히할 必要가잇고 海軍第二補充의 計劃도 이意味에서 期於히 來年度부터着手치안으면 안된다 그러나 너무國防第一主義에 자극받는 結果로서 突然히 逆에 險惡한 感情을 刺激하야 平和的 外交工作의 餘地잇슴에 不拘하고 不必要한 軍備를 急히한 일이다 不然이면 米露二國을 敵으로하고 延하야는世界各國을 相對로서 戰爭을 이르키지 안으면안된다 日本으로서는 어데外지든지 日本의平和的 工作을 第一로하고 國防方針을 決定한것이오 外交와 軍備와는併行하야 國際情勢의 推移를보고 萬全의 對策을 講究할것이다

『쏘베트方針에는 侵略이란것은업다』

『滿洲國承認은아즉모를것이다』 京城蘇聯代理領事談

쏘베트聯邦의軍隊國境集中等으로 日蘇間의空氣가甚히緊張하는此際記者는京城駐在쏘베트領事代理 이·페르로프氏를 訪問하고如左한一問一答을試하엿다

問 北鐵交涉은어찌될줄아는가
答 우리들에게는모르겟다
問 쏘베트가海蔘威에軍事施設을한다하는데事實인가
答 自己는들은일은업다 陸軍의演習等은거의들하고잇슴으로그잘못이아일가
問 日蘇國際關係가漸次緊張하야오는듯이傳하는데 日本通의貴下는이情勢를어떠케보는가
答 그런것은 只今外지자주傳하나 그것은傳하는이의自由이다 쏘베트의方針에는侵略이란것이업다 쏘베트는不可侵條約締結을 提議한터이다 따라今後의 關係는 日本政府의態度하나로轉換될것이다
問 쏘베트는 언제滿洲國을承認하는가
答 모른다
問 米國이 쏘베트를承認한다하는데 貴見은如何
答 이것도 자주傳하는것인데果然實現할가 모르겟다
問 그러나米國은 千二百萬의失業群을擁하고 不景氣에苦悶하는터이니 一朝有事時에武器其他를 買賣하는 經濟的見地에서 出한 意圖라고도듯는데 果然그러면 當然히實現할 可能性이 잇다고는생각치안는가
答 或은그럴서도모른다
問 日本通인 貴下의 隔意업는 對日意見을듯고십다
答 日本과「쏘베트」는 同隣인으로 兩國의 貿易의 發展을 企圖하고 親善關係를增進하야가지안흐면안된다 그리고 그것은『쏘베트』政府의 根本方針이다 이것을 阻害하는 모든妨害를排除치안흐면안된다

그리고氏는 日本在任三個年 現在敦賀駐在領事로『이르긴』京城總領事歸國不在中代理로서來任한이로相當한日本通이다

黃郛舊東北軍의 軍費削減斷行

【聯合天津六日發】 某方面으로의消息에依하면 黃郛는河北財政整理를 爲하야舊東北軍及雜軍의軍費를極度로緊縮하기로 決하고 먼저張作相에對하야 所屬의 五千元의給與를縮減할旨를通告하고此에依準하야 各軍에對하야給與를 斷行키로되엿다 이것으로因하야舊東北各軍將領들은크게狼狽하야其對策을協議中인데本問題는今後相當한紛糾를免치못하리라고觀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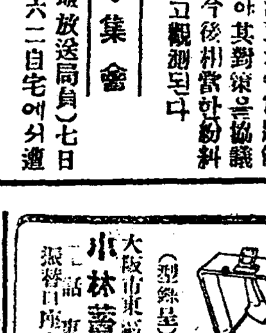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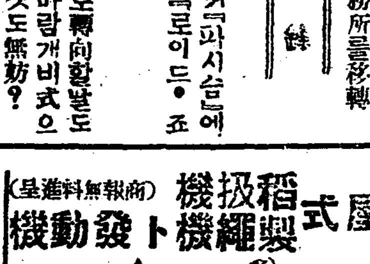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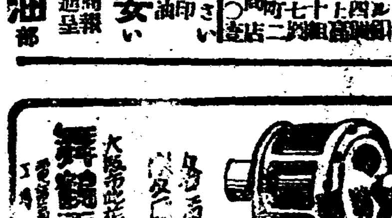
人事·集會

▲南廷駿氏(京城放送局員)七日市內體府洞一六二自宅에서逝去
▲蘇完奎氏(辯護士) 今般敦義洞七六之一로事務所를移轉

八面鋒

◇『리버랠리슴』에서『파시슴』에 英國의老政治家『로이드·죠지』氏가轉向。
◇人間에서天國으로轉向할날도 不遠하얏스니、바람개비式으로轉向하는것도無妨?
◇秘密裡의五相會議、表面으로는一元論과二元論의對立。
◇裡面을들여다보면 五元論이나아닐가。五相의比例가 [illegible]되는날이면 秘密탕크가터질念慮도不無。
◇比島上院이獨立法案을拒否、羊頭狗肉이면、애적에젓가락을대기실타는수작。
◇資本主義의『큐라소ー』는軍國主義의 [illegible]보다는鄕子나 [illegible] 먹자、苦肉策。

今日本紙四面

大阪優良商工案內
コール天 作業服 學生服 青訓服 製造卸 大阪市東區谷町三 辻豊商店
帽子問屋 廉價表進呈 大阪東區南久寶寺町 小林一商店
革服製作 阪井革服製作所 大阪南區 電話東八〇一番
ボタン 問屋 玉井商店
ハギレ卸 津村合資會社
子供服問屋 大塚榮商店 大阪東區谷町三丁目
小間物問屋 馬場惣一商會 歯ブラシ
自轉車部分品及諸金物打刃物スコップ 合名會社竹田商店

小林蓄音器製作所 大阪市東區谷町西之町 レコード 蓄音器及用品一式

寶屋式 稻扱機 製繩機 ト 發動機 寶屋農具製作工場 大阪市西區南堀江通三丁目二十七
牛エリ問屋 勝本久七商店 大阪市南本町三丁目
店名 油は小島が一番安い 小島礦油部

モーター 舞鶴電機商會
花環裝飾材料 造花·徽章 田端商店 大阪港區九條中通一丁目
丸進印製品發賣元 佃煮飴煮、水産加工品 鹽辛類ワサビ漬瓶詰 近森商店
和田シャツ製造所
ワイシャツ
萬年筆 古村製作所
各種ペイント刷毛 工業用刷子 細川商店
半ゑり問屋 井上良商店
シャツカラー卸 辻市商店
金儲 石橋製作所
ネクタイ 稻村商會 高級洋裝雜貨製造卸 神前商會
避雷針 橋本乙一
ハギレ貳等品 モス、人絹、綿布小服地
事務服問屋 杉浦幸義會

西大門署高等係 休日、突然再活動

現在被檢者만十六名

曉頭五靑年또檢擧

서대문경찰서고등계에서는지난번에 검속한 남만희(南萬熙)등 오륙명의청년을 련일엄중취조해오더니 무슨단서를 어덧음인지 칠일오후에는 다시시내모처에서 리귀순(李貴順)이라는녀자와 강호순(姜鎬琛)이라는청년을 검속하고 또팔일오전한시경에는 고등계형사대가 시내숭사동(崇四洞)방면으로 출동하야 공산주의거두로 유명한안광천(安光泉)의족하 안삼원(安三遠)을비롯하야 남긔직(南基稷)오영생(吳永甦)두청년과 모신문사 배달부 어윤명(魚允明)등 다섯명을 검속해다 노코서 방금 낫으로 계속하야 팔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길야(吉野)고등계주임이하 고등계원이 총출근하야 이층고등계실에서 문을굿게잠그고 아주 엄밀한취조를진행하고잇섯다 동서의 활동은아프로도 더진전될것 가태보이며 사건의 내용은아직 적확히알길이 업스나 해외에잇는모모공산주의 거두들과련락하야 정체한 조선안 좌익운동을 부흥시키고자적색로동조합 조직협의회(赤色勞組協議會)비슷한것을 조직할라고약간 그준비를 진행하고잇슨듯한 혐의라한다 취조가끗나는대로 사건은 검사국으로넘어가게될듯하다하며 팔일정오까지검속되어잇는사람은다음과갓다고한다

▲南萬熙▲李鋪一▲朴日馨▲康圭壽▲李東鎬▲李秉進▲李鍾燁(女)▲韓成鎬▲韓成祿▲李貴順(女)▲姜鎬琛▲南基稷▲安三遠▲吳永甦▲魚允鳳▲魚允明

思想書籍耽讀한 兩女生突然被檢

東大門署도夜半에活動開始

組織有無를追窮中

시내 동대문서에서는 지난사일밤에 돌연활동을개시하야 시내운니동(雲泥洞)십사번지 에서 녀자상업학교(女子商業學校)이년생 박운(朴雲)(一九)과 그부근에하숙하고잇는 역시 녀자상업학교이년생차소저(車小姐)(二〇) ▲以上假名▲을 검거하여 방금 엄중히 취조하는중이라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권귀 두녀학생은 박운의집에류숙하고잇든 신의주(新義州)출생 진모라는 녀자에게 지도를바다가지고 좌익서적과 잡지를사서 읽기시작하여 자조 왕래하면서 연구한일도잇서 경찰에서는 혹시 이두녀학생이 중심되여가지고 녀자상업학교 안에 독서회(讀書會)가튼것을 조직하지나아니 하엿든가하는 혐의에 지나지못하나 취조에 따라혹은이사건이 확대될념려도 업지안타한다

苦學堂秘社事件 七名은有罪決定

七日午后京城法院公判에廻附

免訴된者는二人

고학당(苦學堂)학생이 중심이되어 적색로동조합(赤色勞働組合)을조직하고자 만단의준비를해두고서 창립과일을 멧출안남겨두고 조직과정에 동대문경찰서에 발각되여 금년 일월이십일일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등 죄명으로긔소되야 동법원예심으로 넘어가서 이래현(脇)판사의손에서 심리중이든 유정진(兪丁鎭)등아홉명은십개월만에 칠일오후에 예심이종결되어다음과가치 일곱명은 공판으로넘기고 두명은 면소석방되엇다

▲公判附者=▲盧四石▲李福萊▲金鍾源▲趙英植▲朴仁善▲金興元▲朴是秉▲免訴者=▲兪丁鎭▲李丙老

東京福岡間의 夜間飛行困難

【福岡東京電話】 연긔에연긔를거듭해오든 동경、복강(東京福岡)사이의 야간비행은비행장의사용문제로말미암아그실행이긔체되어잇섯든바 그문제도 해결되엇슴으로 오는 십일일부터 실행되려든 이번에 또장애가생겨서 과연 이것이실행될가안될가가 의문이 붓게되엇다그리유는일본항공수송회사(日本航空輸送會社)의조종사(操縱士)가 야간항공에관한설비가 불완전한 항으로국(大衆)조종사주임황씨는독일아츰에 동경으로가서 동경지장부소장소천(小川)씨와 협의를하고서 이상사실의 진정과경고를하얏다 이에문에 십일일일의첫비행은 파연하게될는지 어떠케될는지 의문으로 되어잇다

科學文明의첫侵略 鐵馬來嘶漢水濱!

◇庚子年春에京仁鐵道가開通

濟物浦에서仁川까지 (二)

壬午軍亂뒤니어서 仁川海上日淸艨艟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 체결된후에도 인천은 즉시개항이 아니되엿스나 그것은도가갓가운 인천을 얻는개항할수업다는 파명들이 남어잇기까닭이엇다 그럼으로 조선에서개항이저원먼저되것은 부산이엇고 그다음이 원산(元山)이고 인천이 다음에야 되엿든것이다。그리다가 임오(壬午)년이되여서 곤권을 중심으로한 민씨일파와대원군을 중심으로한 일파가맞고닷다가 대원군이 실각한이래로 념봉에마음보다 재밥에 마음이더씨이는 민씨들은 사복을채우느라고 관리들의 관록(官祿)은고사하고 군졸의 록쌀까지잘라먹느라고 십여개월동안 록쌀을 아니주다가 군졸의원성이 차츰노파가매 임오년 칠월에이르러록쌀을 논아주되 묵고묵은 썩은쌀에다가 모래(沙)를 섞어서 논아주니 차이고 차엿든 군졸의불평이 일시에 폭발하야 미츰내그달이십삼일에 소위 임오군란이란 사변이생기엿다。그래서 이사변에민겸호 김보현(閔謙鎬金輔鉉)등의 세도재상들은 못칼에어욱이되고 민씨파는 민씨는눈에뜨이는대로 모조리 죽엿스며일본공사관도 관군에게 충화를바다당시주재의 화방의질(花房義質)공사는방흑을 인천으로 피신하얏스니 이때부터인천은 수로로 교통의요지가되어서울의 인후가되엿섯다 본국으로도라간 화방일본공사는 그해팔월에 군함 금강(金剛)일진(日進)부상(扶桑)청휘(淸輝)의비적에다가 해륙군일천여명을 실고인천 만두에나타나 사변의책임을 캐어려하얏고 이와동시에 사변으로 화액을당한 민씨일파는 청국에가서 대원군의작희로 군란이낫다고하야 청국서는 살진빙(薩鎭氷)함대의 수사제독정여창(丁汝昌)을식히여 군함 위원(威遠)위초용(威超勇)에 다가 오장경(吳長慶)의 거느린 륙군까지 이천오백명의 군사를 보냇스니 인천앞바다는일청(日淸)의몽동(艨艟)으로 바다가덥히고일장황룡(日章黃龍)의정긔(旌旗)가하늘을가리여인천개관한후에 처음되는 긴장한긔세를 보이게되엿다에약진대원군이그후청국으로 잡혀가고 조선과일본사이에는 다시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란것이 체약되엇이다 이와가튼 여러가지복잡한곡절이 잇슨다음 마츰내인천은계미(癸未)년 륙월삼십일에 개항이되고 말엇스니 오십년후오늘날에 오만칠천여명시민을 용납하는대인천(大仁川)의첫출발이 이것이엇다

列强들이垂涎하든 京仁鐵道敷設事業

그후부터 인천은 차츰발전의거름을 내드되엿스니 교통이수로아니면 륙로로밧게 업든시절이라 외국의사신이온대도 인천에서 배를비려 사인교(四人轎)나남여(籃輿)를타고 서울까지왓고 조선에서 외국손님의마중을가도 인천까지가 가장원도의마중이엇다이와가치외국손님이드나들고보니 거긔따라 시설도 늘어서 인천의만국공원(萬國公園)파가튼곳은 공원으로 조선서 처음생긴곳이며철도로 경성인천간의 경인선이조선의 처음생긴 철도이다 일개어촌으로 제물포의이름을 아는이알고모르는이 모르는곳이 개항한지 십삼년만인 을미(乙未)년에는 무역년액 륙백사십일만 팔천원의 엄청난 수자를보엇고 그후십년만인 갑진(甲辰)년 일로전쟁에는 일천구백륙십팔만원의 약진적수자를 보엿스니 인천이 이가튼 폭발적 발전을 보이것은 경성을 갓가이 지고잇서 양의리(地利)를 어든데잇고 철도의 일즉노인 혜의리(時利)를어든데잇스니 경인철도는처음부터 일본사람이 춤을생키기시작하야 갑오년(甲午)부터일본사람중대삼윤(中大三輪)과 증권신지(會田信之)가 계획을하엿다 그러다가 일청전쟁이 시작되매 일본서는 군용철도를노코자 년권에만철총재(滿鐵總裁)까지한 선석공(仙石貢)박사를식혀 경부철도(京釜線)와 경인철도 부설의 실지답사(踏査)를 식인결과 이백만원이면 경인철도의 부설비가 될것까지 조사하야노코 인애일쿵의 권국은 일본에게유리하게 전개되여 호지부지실현식히지못하얏섯다한다 그후 을미(乙未)년에 이르러사월 열사흣날 당시일본공사 정상형(井上馨)과 조선외부대신 김윤식(金允植)은 로량진(鷺梁津) 인천간의 철도부설에 대한 새조약을 체결코자 교섭하다가 영국、미국、독일、로서아의 네나라가 간섭하는통에 그교섭은그대로 주물려더르린 형세가 되엿섯다。 어듬해병신(丙申)년에이르러 경인철도부설권은 미묘한관계로미국사람『모리스』에게넘어가니 권리를 어들번하다가배앗긴 일본측에서는 분개하야당시공사이든 소촌수태랑(小村壽太郞)이 항의를하고야단을첫스나 별효과를 엇지못하얏섯다。그후정유(丁酉)년에이르러『모리스』는 철도부설의 자금을 돌릴수가업서 공사를 마치지못한채로 삽택영일(澁澤榮一)등의조직한 철도조합에 그해오월팔일로써 인계식이고 말엇스니 일본사람은 다년원하든바를 어덧고 한국으로서는 제것을가지고남이 팔어먹어도 말한마듸업섯다 철도조합에서는 공사를 진행식여 경자(庚子)년칠월팔일에 인천、서대문(西大門)간、이십록『마일』의 영업을 개시하야 철마래시한수빈(鐵馬來嘶漢水濱)이란 동요를 실현식혓다 당시로 말하면 철도가개통은 되엿스나 한강의 철교를 가설치못한때이라 기차는 인천서 영등포(永登浦)까지 와서는 나루배로 한강을 건너가지고 룡산와서 다시기차를타고서대문까지 오도록 려객운전을하얏스며 성안성내에서는 화륜차(火輪車) 구경간다고 구경군이 물밀듯하얏다

寫眞은京仁鐵道開通式當日初運轉

서울고무工 又復動搖怠業

會社側은撫摩中

시내 동대문외 신설리(新設里)에잇는 서울고무공업회사 에서는 이삼일전에 종업하는직공의 임금을 내리우겟다고 발표하엿든바 그공장종업원 일백오십명은 임금내리우는데 반대하는의미의진정서를회사측에제출하고 교섭하엿스나 원만히 타협이되지못하야 지난오일부터 전종업원 일백오십명은 태업(怠業)을시작하야 동맹파업을할 긔세가보이어 회사측파 소관동대문경찰서에서 경계중이엇스나 칠일부터 회사측의 회유와 경찰의 엄중감시에문에 팔일 아츰에는 전종업원의 약반수인 칠십명이 취업하여 일을하나 그남어지팔십명은 아직태업을 계속중임으로 회사측에서는 사건이다시악화되지나 아니할가하야 비상히경계하는동시에 태업하고 잇는직공들을 회유하기에 로력중이라한다

水準을마춘것 會社側의말

서울고무회사태업사건에대하야 회사측에 알어본건대이회사의 공장은 원래다른공장에비하야 고무신한커레에대한 임금이 다른곳보다 조금후하엿섯는데 그것을 다른회사의임금수준과가티 내리우기 위하야 재래에 삼전오리식 주든것을 삼전으로 이전오리식 주든것을 이전으로 내리운데 불과하다고 변명한다

馮庸大學生十四名 日滿要人暗殺工作

海蔘威를經由하야滿洲潛入

支給된軍資五十萬元

【電通奉天七日發】 항일의용군(抗日義勇軍)은 여러번 만주국반대책동에 실패하고 지난달 십일 천진시당부정리위원(天津市黨部整理委員) 류부동(劉夫同)이하를 참모로하고 장개석(蔣介石)으로부터군자금오십만원의 지급을바다 풍용대학(馮庸大學)학생이하 사십명을 인솔하고 해삼위(海蔘威)를 경유하야 길림성유분하(綏芬河)로부터만주에 잠입하야 만주국 요인암살의지령에 드디여 두어반으로 논아가지고 잠행운동에 착수하얏다는정보가잇서 당국은 목하극력수사중이다

內外姓共通토록 研究中의改正民事令

조선인과 일본인은 피차에그풍속과 습관이 달라서친족상속에대한 규정은 조선인에대해서는 일본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안코 조선민사령을 적용하는외에 일반관습에의하게되어잇는데사회생활이 점점 복잡해짐에따라서 자연히습관、풍속도만히변화해젓슴으로 민사령의개정이일부에 주창되어 총독부법무국(法務局)에서는 고등법원과 협력하야 작년부터 조선민사령중의 친족(親族)、상속(相續)에 관한부분의개정조사에착수하야목하 고등법원 민사부가중심이되어 법무국 도변(渡邊)법무국장이 참가하야 심의를진행하고잇다 상외는 …… 중에서 …… 며조선에서는 서양자제도(婿養子制度)를 …… 것과 또조선에서는 녀자가결혼하야 남의집에 가서도 의연히 친정성을 가지고잇섯스나 이것을일본과가티 남편의성을 딸토록 (서양자는안해의성을딸르게됨)개정코저 연구하고잇는중인데이것은 조선고래의풍습을 근본적으로 개정케되는 중대한 문제임으로자못신중히연구하는 중이라한다

音樂과實演의밤

蓄友會主催 九日夜七時부터公會堂에서開催

금번새로 조직된 종로축우회(鍾路蓄友會)에서는 『폴리도ー루』 지점후원으로 구일밤일곱시부터 시내장곡천정 공회당(市內長谷川町公會堂)에서음악과실연의밤(音樂과實演의밤)을 개최하리라는데 당야 출연하는 가수(歌手)는 정재덕(鄭載德)신일선(申一仙)왕평(王平)라품심(羅品心)왕수복(王壽福)김용환(金龍煥) 박제행(朴齊行) 권속가수등 『폴리도ー루』 전속가수이며 그밧게 조선권반 무용부(朝鮮券番舞踊部)도출연한다고한다

大邱秋期講演會盛況

【大邱】 대구지국에서 본보혁신을긔념하는 추기대강연회는 긔보 예정과가치칠일 오후세시반부터 동일공회당에서 개최되엿든데 이날에는 우천으로일긔가매 우조치못함에도 불구하고 천여명이모여성황을이루엇스며 특히본사편집국장 주요한씨의 신문는케목하의단만이라강화는대구에잇는 독자들로하여금 특히감격한바잇게하고 또윤일평씨의가장성의잇는 리조말년사의 강화에는 청중이식사시간까지 지이커바리고 강사나청중이성심성의로 시종하얏다

平壤赤勞組 米川은控訴

【平壤】 평양적색로동조합사건의피고 미천추수(米川秋穗)(二六)외삼명은긔보와갓치평양복심법원에서 각기유죄 판결을밧엇든바미천은칠일 복심법원에 공소를하엿고남은삼명은 전부복죄하엿다

水上偵察機 墜落沈沒

【橫須賀電話】 칠일오전 열시반에 횡수하해군공창 비행실험부(海軍工廠飛行實驗部) 구십식수상정찰 비행긔에 직공웅곡모(熊谷某)와 소송(小松)모의 두명이라고 시험비행하든중추빈항공대(追濱航空隊)압하도(夏島)압바다 공중에서 긔관에 고장이생기여 긔체는송곳비비드시 생생도라 바다에추락하야 침몰하얏는데 승조한두명은 행방불명이되엿다

카나리야機 카라티到着

鵬程四千二百哩

【加爾各答五日發】 무착륙장거리 비행세계 긔록을짓기위하야 동경한 불란서비행가『루뻐ー볼녹잔、앗소ー란』량씨의『카나리아』호는사일아츰지중해(地中海)를횡단하고 오일해지기전에 인도(印度)에 드러와서는데『까솔린』이 결핍하야 방중에『카라티』에 착륙하얏다 착륙시간은독크리닛치표준시간오일오후 여섯시오십분으로 비행시간일일 십삼시간오분이오 비행『마일』수사천이백『마일』이어서『코드스、롯시ー』량씨의 『뉴욕』라야크간의 긔록보다는 아주도 큰차가잇스나 량씨는이실패를 분하게역여 다시재거하리라한다

運動競技

全間島蹴球 恩眞優勝

東興善戰惜敗

【間島支局電報】 秋夕名節을 利用하야 間島體育會主催의全間島蹴球大會는 七日龍井村에서開幕되엿는데參加軍十一團體에達하엿스며 決勝戰에는間島의兩雄東興中學對恩眞中學의一大決勝戰으로 勝敗를鮮明하는 白熱戰을演出하며再三延長戰을 行하든끄테 恩眞軍最後攻擊으로幸運의一點을어드니 結局二對一로東興軍含淚惜敗하엿다 少年部에는 進明軍이이겻스며 『신민』군과『소민』군은 無勝負로마치엿다 이러하아同大會는 近來希有의大盛況裡에 圓滿히 終幕되엿다

六大學리ー그戰 《七日까지의戰績》

順位	試	勝	敗	率
1. 立敎	12	10	2	.833
2. 明治	13	8	5	.615
3. 慶應	10	5	5	.500
4. 法政	11	5	6	.455
5. 早大	9	4	5	.444
6. 帝大	13	2	11	.154

京城帝大主催 學生卓球大會

來十五日開催

京城帝大學友會卓球部主催第六回全朝鮮學生卓球大會는 十月十五日午前九時부터個人戰 十六日午後一時부터는 團體戰을行할터이라는데參加申請은十日限이라한다

立敎5A…2慶應

【電通東京電話】 六大學리ー그慶立第二回戰은 七日午後二時十二分부터 神宮球場에서開始한바結局5A2로立敎快勝

▲投捕 慶應…三宅•小川•淺井 / 立敎…景浦•菊谷•日置

慶 0 1 0 0 0 1 0 0 0=2
立 0 2 3 0 0 0 0 0 A=5A

世界野球選手權 巨人軍獲得

巨人四勝•華府一勝

【聯合그리피스타디엄七日發】 世界野球爭覇第五日은 七日午後一時三十分巨人軍先攻으로開始한바 巨人軍二回에單打二點을得하고 六回에도一點을加하야 優勢를보이더니六回에게巨人軍投手슈ー맛체君녹아웃시키여五個의安打와『쿠즈』君의本壘打로 一擧三點을奪取하야延長戰에드러가結局4對3으로巨人軍辛勝하니 今年度의覇者은巨人軍四勝一敗의戰績으로獲得하엿다

獨佛陸上對抗 佛國對獨逸

對抗陸上競技는 九月十七日巴里에서行한바 83 對 69로獨逸優勝하엿다

英伊陸上對抗 伊太利勝

英吉利對抗陸上競技大會는 지난九月十七日伊太利 미라노市에서行한바 85 對62로 伊太利優勝하엿다

博士創製의 毛生藥

毛生藥후미나인은皮膚科專門大家田中醫學博士가發見한것인데 毛生에必要한適度의殺菌作用과興奮作用과榮養作用等을發해주어맛치草木에對한土壤日光肥料에比할만한良藥이요

머리지이머리민데●숣은데●탈모●헐어진데●빠진데●머리꼭지상하는데●털실못난데●男女가꼭잇서야할곳에털업는데其外털이不足하거나맛당치못한곳에使用하시요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全國到處藥店에잇소) 說明書申込次第進呈

發賣元 東京市芝田村町電車通り 東京藥院

毛生藥 후미나인

移轉大擴張 眼科 耳鼻咽喉科 洪錫厚診察所

鐘路靑年會下層西隅室(서쪽모퉁이방) 電光二二二八番•振京城二一三〇七番

眼鏡製造販賣部主任金敎益

産制要具 防毒要具には 安全なる ラッキースキン

薄くて丈夫で腐らず天然のフイシュスキンと同様で使用感のふくらむ一歩進んだゴムサック 現代の最も要求する理想品です

全國有名藥店にあり 日本ラッキー護謨製造所

鐘路 特約 徐祥錫 오케ー레코ード 一五八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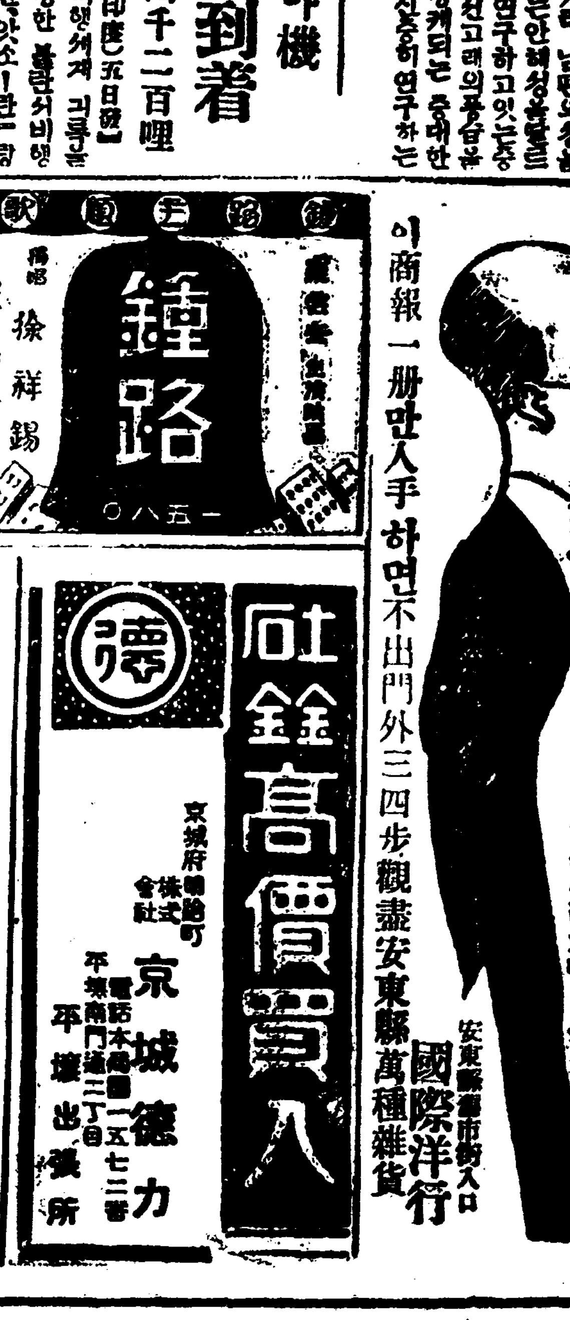
無代進呈 紙上百貨陳列 國際洋行商報 最近新編輯號

이商報一册만入手하면不出門外三四步觀盡安東縣萬種雜貨

安東縣市街入口 國際洋行

1 時計를사려거든 2 … 3 … 4 …를사려거든 5 …를사려거든 6 …를사려거든 7 眞珠를사려거든 8 貴金屬을사려거든 9 舶來萬雜貨를사려거든 10 藥材漢藥을사려거든

國際洋行으로



金高價買入 德 京城府鍾路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電話本局一五七二番 平壤出張所 平壤南門通二丁目

軍手用 毛糸編物 各種針針板 軍手編機械、附屬機械 製造元 光星舍製作所 大阪市北區川崎町 電話北六一三〇 振替大阪六八一七五

入院室完備 皮膚科•花柳病科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奉允 京城安國洞네거리 電話光二一二三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 特價로提供함 豐年은왓다 今年에稻扱機는! 新的이며實用的인 岡部式 稻扱機를愛用하라 組立 一人用一臺 二人用一臺 金六圓 金八圓 農具品專門製作鑄造鐵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櫻川二六四二一 振替大阪一九九一六

現行市價三分의一投賣 瑞西製十六形十五石入純クローム側實用アンクル市價六圓品特價四圓半錢也 大形十五石入大金代用金側實用アンクル市價二十圓의品特價六圓七十錢也 十五年保險付 先金注文(送料負擔) 時間正確 絕對保證 (代金引換은十錢加) 信用本位 (商報)(進呈)

◉時計를買入하려는분은必히 本洋行時計部로 一次問議後로決定하시오 今般斯界에大發明인 合理的實用品으로十八金同樣不變色代用金側時計를發賣以來全鮮各地에서破天荒의注文과絕對好評의感謝狀이나날이늘어갑니다 직도歐米洋行의奉仕的事業을모르시난 분에게以上特價品을紹介하오니 他店에比하여 安價이오면注文書即送을 願함

新義州府雲井町二四 郵便私書函 歐米洋行時計部 振替京城二九九五〇番

優美館 十月六日브터超特別大興行! F、O、X名畵週間 FOX超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아ー사ー고난도일氏 샤ー록크홈ー무스 월니암K하바ー드氏大作 그라이드부룩크氏主演 미리암쏘ー단嬢 아ー네스다ー랜스氏 FOX特作全發聲映畵! 監督에에프에리크손氏 感激의怒濤 T하롤드무래ー氏 로이스모ー란孃主演 폭스發聲뉴ー스

第一劇場 十月七日낫부터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喜劇 飛脚간다 全八卷 에디ー칸다君原作主演 飛脚간다의痛快喜活劇!爆笑犯人追跡夫그의舞踏와戀愛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喜劇 三週間 全七卷 크라라보ー嬢主演 말광영이아양의히극을보시고뉘인 이웃지아니시리가! 米國PDC超特作品 戰爭活劇 東을向하세얼골을 全十卷 크라이부룩스氏主演 졔ー리그드탈嬢 歐洲大戰時의올림난三스파이劇

새 안인景氣조 혼니약이 一齣

날개도친 箕林里土地

二萬餘圓의 土地를 十二萬餘圓에 競買

入札者無慮八十餘名

【平壤】 평양지방법원에서는 사일 근년에 보기 드문 토지의 경매경매를 하엿다 경매를 당한 토지는 채무자 부내상수구리 최석용(崔錫龍)씨의 소유이든 긔림리소재의 십사필 면적 일만 천구백륙십오평의 광대한 것이오 채권자는 한성은행 조선은행 식산은행 복금융조합등으로 긔림리 일대가 근년 무서운 형세로 발전하고 잇는만큼 전긔토지도 일반에게 큰긔대를 가지엇슴인지 이엿을 살려고 만흔돈을 가지고 모혀든 사람이 팔십여명에 달해서 완연히 토지광시매를 연출햇다 동법원에서는 평소사용하든 경매장소에는 도저히 수용할수업서 신축한 대법정을 경매장소로 정햇다 최초에는 보증금을 밧으며 경매를 시작햇다 혹시나 돈을 노리는 강도단이나 뛰여들지 안을가? 하여 집달리들은 권총을 배여들고 대소동이다 오전아홉시에 개시한 경매가 오후 다섯시삼십분에야 끗낫는데 총평수 이만팔천칠백칠십육원의 토지가 십이만구천구백삼십칠원에 팔니어 평당최저 오원으로 최고 삼십원까지 되여 이 보증금만도 일만삼천 삼원에 달하엿다고 한다

매정십오년 □일에 공보교 긔성회를 조직하고 이래 칠팔년간 당지면장김형순(金炯淳)씨외 회원일동이 열성으로 과 소화이년경에 공사비 칠천여원으로 신교사를 신축하고 소화륙년에 사년제 공립보통학교인가를 바더 동리사람들부터 개교하야 오든바 지난륙일에 동교직원과 본교후원회 역원이 회합하야 개교식과 경로회를 개최하여 본교긔성회원과 면내유지를 위안하기로 협의하고 그간준비한바 지난구일이 집이일에 성황리에서 개교식을 거행하고 동일오후에 경로회를 개최한바 칠십세이상 구십오세에 이르는 로인이 백구십사명이나 참가하야 성대하게 맛치고 군내각학교학생 학부형 제진관회까지 잇섯다고 한다

새로創立되는 安信水利組合

地主、負擔過重타 非難

【安岳】 산미증식계획하는 이때에 지난달이십구일오후한시 신천온천호텔에서 안악신천 양군수에 발긔로 안악대원용순(安岳大遠龍順) 신천산천노월(信川、山川蘆月)등지에 토지를 둔 지주삼십여명과 총독부기수 도청에잇는 토지개량부장등 제씨의 열석하에 안신수리조합(安信水利組合)을 창립하기로 토의하고 창립위원으로 약간인을 지정한후 해산하얏는데 그소식을 들은 룡순 대원(龍順、大遠)등지의 지주들은 부당이 과중하다고 떠든다는바 부담내정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信川郡蘆月面 一段步 륙원삼
同 山川面 同 一、칠
安岳郡大遠面 同 四、칠
同 龍順面 同 四、五

治道人夫가 什長蹴殺

충북영동서

【永同】 지난이십오일오후세시경에 충북영동군영동면 오탄리(永同郡永同面梧灘里)압 영동옥천(沃川)간 일등도로공사장에서 인부십장으로 다니는 경남진주(慶南晋州)산다는 문봉현(文鳳鉉)과 그곳에서 일하는 경북예천군풍양면하학동(慶北醴泉郡豐壤面下鶴洞)사는 권사일(權士一)(二五)은 사소한 말로 싸우다가 권사일의 발길에 채여 죽엇다한다 그내용을 드른바에 의하면 신작로공사장에서 일을 맬러하라고 재촉을하며 욕설을 하얏다는데 일을하고 잇든 권사일은 일시에 분함을 참지못하야 돌연히 문봉현에게 대드러서 발로차고 구타를하든중 그로 봉현의 배를 차서 일시긔절한것을 여러인부의 구원으로 께여난후 즉시부내영동 병원에 다리고 와서 응급처료를 하얏스나 효과를보지못하고 이십칠일 오전일곱시경에 사망하얏다는바 소관영동 경찰서에서는 즉시공의 의집도로 해부한결과 대장(大腸)이 상하야 사망하엿슴으로 판명되얏다하며 범인은 즉시 체포하야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영해백만장자김명식(金明植)씨의 아들영식(永植)이가 수만원의 빗이잇든바 그부친이 갑하주지 아니한것이 옹긔로 대구형무소에까지 수감되엇다가 근일변만에 출옥하자 사망하고 그의안해 리당춘(李堂春)은 단 한아인자식 봉수(奉洙)(三)만 밋고 지내오든중 그일에이르러 전긔봉수가 광주리몽재(李夢載)란사람에게 돈을쓰고 저명로잇는 토지이백팔십여두락을 허급하엿든바 전긔 김씨는 리씨를 상대자로 토지반환 소송을제긔하는 동시에 경찰서에 유치되엿다가 지난이일에 석방되자 그이일인삼일오후에 그의조부이권긔 김씨가 발견하고 곳소관경찰에 실고가서 무료응급치료를 시켯든바 경찰은 기대한재산가로서 무리한요구를 청하는것이 불가하다하야 이를 거절하엿다 김씨는다시 자긔집으로 실고가서 그대로 두엇든바 필경 사망하고 말엇다 한다

光州刑務所長의 『非行』을 列擧投書

前看守와의軋轢이原因

興味잇는今後展開

지난팔월하순경에 총독부법무국장(法務局長)에게 괴상한투서가 드러온일이 잇섯다는데 그것은 동촌광주형무소장(藤村光州刑務所長)외 간수(看守)한명이 광주형무소에 구금중인 모미결수(未決囚)에게 유리한 중요서류를 분실하엿다는것과 기타업무상과실 여섯가지를 라렬한 투서이엿다 한다 그리하야 법무국에서는 그후에 수사의 주지를 광주형무소에 조사하여오는바 최근에와서 그투서의 필적으로보아 전에광주형무소에 재근하든 간수주정(酒井)모의 것이 판명되여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암성검사(岩城檢事)가 전과주정봉수 차취조하는 일방 현직간수 도수명을 증인으로 취조하엿다 하며 동촌광주형무소장은 주정을 무고죄(誣告罪)로 고소를하엿다는데 이에대하야 주정은 생명을 도하여서라도 정의를 위하야 싸우겟다고 호언을 하고잇다 한다

本報革新 記念講演

利川支局에서

【利川】 지난오일오후팔시에 리천군 신둔면수광리 진명학원 내에서 신문과사회라는 문제로 본보리천지국장 장동윤(張東潤)씨가 출장하야 강연을 하엿는데 청강자가 오십여명에 달하엿다 한다

修旅學生團과 市民間에 衝突

一時大混亂을이루어

雙方負傷者多數

【慶州】 경성사립××학교삼사학년 수학려행단 일행구십오명이 선생사인에게 인솔되여 지난사일 경주에 도착하야 예정의 견학을 맛치고 륙일오후 경성을 향하야 떠나기로 되엿섯든바 출발전의 남은시간을 리용하야 학생이 시가에헤치여 이곳저곳을 구경하든중 학생죽떠명이 읍내로동리 박자현(朴子賢)상점에가서 감(柿)을 흥정하다가 주인박씨와 말다툼이 되여 나종에는 박씨의 아들과 싸홈이 이러나고 그싸홈이 커지여 학생전체와 군중수백명이 대립이되여 경주주재소까지 관에서 일대격투가 이러나서 쌍방에서 경상자를 내고 약한시간동안이나 격투를 계속하엿는데 쌍방에 다수의 부상자를 내이고 결국 경관의 진압으로 진정되엿다 이러한 참극은 경주로서는 처음보는 일이오 또조선교육계의 일대불상사라고 할수잇스며 학교당국의 학생지도에 대한 주의를 촉하야 마지안는바이라 한다

『是非는莫論 責任上未安』

某校 先生 談

경주학생과 경주시민의 충돌사건에 대하야 모학교당국의 교원 모씨는 말하되 『사소한일로 말다툼끗에 그가치 싸움을 하게되엿슴은 심히 미안합니다 시비는 어느곳에 잇든지 이런불이 생긴것만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늣기지 아니할수 업스며 금후로 더욱 주의하겟습니다』 한다

水原에 婦人講話會

【水原】 수원군에서는 농촌부인에게 대하야 농촌진흥운동의 취지를 철저케하기 위하야 오는 십일일 오후두시부터 네시까지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부인강화회를 개최할터이라는바 일반기혼부인(既婚婦人)의 다수청강을 바란다고 한다

平壤老會에서 章臺峴事件解決

【平壤】 사일부터 평양부내산정현교회당(山亭峴敎會堂)에서 개최된 장로교평양로회에서는 금춘이래 량파에 분열되여 성단에서 류혈극까지 수차연출하든 장대현교회문제에 대한문제를 토의한결과 장대현교회당회가 공포에는 교역자팔명의 책벌(責罰)은 취소할것과 당회에서 로회에 제출햇든 항의서는 철회할것등 이개조건부로 문제를 해결햇다 그러나 목사봉신입문제등이 그대로 남어잇는 이상 소위반대파에서 어떠하게 나갈지 금후가 주목된다

三水自西公普校 開校式盛況

【三水】 함남삼수군자서면상거리(咸南三水郡自西面上巨里) 사립자신학교(私立自新學校)는

咸南金組員의負債 六百十四萬圓

三十七個金組의總計

【咸興】 함경남도금융조합총수와 조합원수를 보면

農村金融組合 三五個所 四六、五七〇人
都市金融組合 二個所 一、三四九人

즉 금융조합총수는 삼십칠개소(이밧게 사개소의 지소가 잇다)인데 그조합원은 전부 사만칠천구백십구인이다 그런데 이들조합원이 대출하여간 금액을 조사하여보면 총대부금 말현재로 륙백십사만 사천삼백칠십삼원이라는 거대한 액수에 달하고 잇스며 이것을 전조합원 전체에 는아보면 매인평균 일백이십팔원 이십여전식 되니 결국 이만리 빗을 지고 잇는심이며 이대출금에 대하야는 대부분이 상당한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고 잇스며 적지안은 리자를 치러야할으로 근년에는 그보상이 뜻대로 되지안는 토지를 경매당하는 일이 만타고 한다

墳墓를發掘코 頭骨를盜去

金品을要求

【山淸】 분묘(墳墓)를 파헤치고 죽은사람의 두골을 꺼어간 사실이 잇는바 이를 탐문한바에 의하면 그는 경남산청군차황면 상중리(車黃面上中里)에 사는 박위양(朴魏陽)씨 선친의 분묘인바 그가 상당한 부호인것과 또 씨의 조부의 분묘도 이와가튼 변을 당하고 금권의 협박을 바든 일이 잇섯든것에 비하여 이러한 일은 오로지 금권을 탐낸 어떤 불량배의 소위로 추측된다하며 경찰도 범인수사에 매우 부심중이라 한다

金錢앗기다 愛孫목숨닐어

【筏橋】 전남보성군벌교면철

少年窃盜二名 楊州署에被逮

【楊州】 경긔강원량도를 주소부정인 송달오(宋達五)(三)와 리일남(李一男)(三)두명은 공모하야 가지고 지난팔구량일동

問題만흔 平南商品陳列館

道에서다시回收決定

【平壤】 평남상품진열관은 일개 민간단체인 번영회(繁榮會)에 내여맛기고 도당국에서는 만흔비판을 듯고 잇거니와 전번경성에서 개최되엿든 전국상공회의소주임 회의석상에서 경성상공장려관(商工獎勵館)을 중심으로 전국상공회의소와 련락하여 각지방의 생산품 장려와 선전은 물론 판매와 판로문제등에 일으기까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령할것을 결의한바도 잇는터임으로 일개민간단체에 경영을 맛기어가지고는 편협하여 도저히 효과를 어들수업다하는 설이 대두되엿다 이래서 도당국에서는 전비를 뉘우치고 명년도부터는 다시 민간측에서 회수하기로 되여 목하 계획중이라 한다

松林서山火로 死者五十三

【[illegible]】 「그리피스」公園에서發火 로스안젤스최대의 공원(公園)인 「호리웃드·힐스」의 「크리피스」공원에서 일어난 산화(山火)로 사상자가 만엇는데 소실구역의 조사를 맛치고난 조사본부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 산림속과 골작구니에서 발견된 사체는 이십륙개이고 병원에서 사망한자는 이십칠인이어서 합계오십삼명이 죽엇고 그타부상자도 상당이 만타

再三暴風雨로 農作物被害多數

량처에서또다시물로소동

【襄陽】 양양군에는 비와 바람의 폐인지 또 지난오일 오후세시경부터 한울은 흐리여서 비가 나리기 시작되더니 방중한시부터 폭우가 창수지는 곳풍우가 재상담때하야 겨우먹게된 곡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스며 바람은 다소진정되엿스나 비는 여전히 쉬치업시 나리더니 륙일오후 시경에는 대곡우로 인하야 풍영시내 조일정(朝日町) 신정(新町) 방하에서는 큰소동이 잇섯다는데 아직도 비가 일가망은 잘보이지 안는다고 한다

羅津港의發展

四個月間에 千戶가增加

【羅津】 함북라진은 종단항으로 발표되자 관광석회의 급속도의 발전을 보게된바 최근구월말의 현재호구를 지난오월말의 현재호구와 대조하면 다음과가튼 수자를 뵈인다

五月末 二、〇七三戶 一〇、七三四人
九月末 三、五三三戶 一三、九〇七人

面民의渴望이든 文岩市區改正

不遠間에工事着手

【伊川】 다년현안중에 잇든 강원도 이천군판교면문암시(江原道伊川郡板橋面文岩市) 시구개정(市區改正)은 그동안 토지용지로 인하야 수년동안이나 미루어오든중 지난칠월에 판교면협의회에서 지대난 지주에게 기부를 밧기로 정한후 판교면장 리영화씨는 솔선하여 무토지주를 일일히 방문하여 지주측의 승낙을 어더 곳 공사에 착수할 여정이엇스나 농작물로 말미암아 착수치못하고 추수긔만 지나면 즉시공사에 착수하리라 한다

開城高靑主催 懸賞雄辯大會

來十月十七日에

【開城】 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에서 오는십월십칠일 오후칠시부터 동회관 대강당에서 현상웅변대회를 개최한다는데 희망연사는 내십오일까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譴責으로 안듯는다고 乃子를食刀로刺傷

瀕死의重傷으로生命危毒

蕩子를둔乃父의悲哀

【平壤】 평양부외룡리면적정리(赤井里) 조태린(趙泰麟)은 오일오후팔시경에 자긔의 친아들 조필복(趙弼福)(二五)을 때리한 식도로 가슴을 찔너 빈사의중상을 가하고 달아낫다 원인은 아들필복의 방탕한 행동을 질책하엿스나 효력이 업슴으로 찰아리 죽여버리려든 것이라한다 가해자 그아비는 달아낫슴으로 소관평양서에서는 행방을 수사중이오 피해자아들은 목하도립의원에서 수당을 밧고 잇스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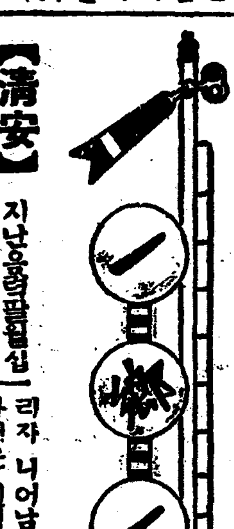
滿朔된孕婦 採蔘타가解産

開城白蔘製造場서

【開城】 인삼의도시 개성은 요즘 인삼캐굴 수삼수납 백삼제조등으로 대활긔를 띄고잇다 백삼제조장으로 몰려오는 직업부인은 조석으로 수천명에 달하는바 지난오일 오전팔시반경에 삼을 깍그러 왓든 어떤부인 백삼제조장에서 해산을한일이 잇섯는데 그는 개성부궁정(宮町)칠백칠십사번지 안상득(安相得)의 처 김씨(金氏)(三〇)로서 수다식구에 생활이 넉넉지 못하야 자긔남편의 로동품 파리만 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니여갈수가 업슴으로 자긔도 놀고 파리를해서 근근히 지내오든중 지난오일에도 임신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백삼장으로가서 삼을 까다가 배가 압흠으로 백삼장안 양긔봉(梁基鳳)의 응접실로 드러가서 산음이옥고 해산하야 옥동자를 나앗다는데 축목의 의미로 백삼제조인들은 돈을모아 금일봉을 산모에게 주엇는데 전긔 모자는 극히 건강하다 한다

金塊密輸出團 大同署에被逮

【平壤】 평양、진남포、안동현을 무대로하고 렬차승무원을 중개인으로하여 대금괴밀수출을 하든 밀수단이 대동서에서 체포되엿다 대동서에서는 지난오일부터 서평양역 선로공부 리춘삼(李春三)이 정도에 넘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것을 괴상히보고 내탐을하든중 의외에도 동인의 배후에는 금괴밀수단이 잇다는것을 간파하고 수사중이든바 동인의 친척인 진남포 박영일(朴永一) 정명식(鄭明植)의 량명이 평철긔관구(平鐵機關區) 렬차승무원 김대욱(金大欲)과 안동현 륙도구(安東縣六道溝) 최관순(崔寬淳)=以上全部假名=등을 각지에 수배하여 전부검거하엿다 금괴밀수의 자본주 박영일과 정명식은 작년가을부터 밀수출을 계획하엿스나 방법에 대하여 번민을 늣기든중 리춘삼과 내통한후 김대욱과 최관순과 악수하고 금년사월이래 평양을 위시하여 각지에서 지금과 토금을 사모하가지고는 쇄수주머니에 삼백내지오백『몸매』식 너허서 안동현에 밀수하든것인바 렬차관계자들은 일회에 오륙십원의 보수를 밧든것이라한다 판명된 밀수출총액만해도 수십만원에 달하는터이라 한다



【淸安】 지난음팔월십사일밤 이집저집에서는 매일아침 추석차례에쓸 송편을 빗느라고 두런거리는 소리밧게 들니지 안는 고요한 밤중에 뜻하지안흔 곡성이 자자한일이 충북괴산군청안면 청안리 한모중이에 들니게 되엿섯다 그는 조선선리철○○관(館)기생중이 추석명절을 당하고 보니 더욱이 그로중조된 몸을 밧관하야 그중한기생이 눈물을 흘리자 니어남어지 거생권부가 덜아서운 인정바국의 한마이 연출되엿든것이라 한다

【安東】 안동읍률세동사백이번지에 사는 최목선(崔穆先)(四)은 빈한한 로동자로서 그날그날 로동하여 지내여오든중 지난음력 십육일 새로 건축중인 안동도립병원 상량식에서 술과 도히마시고 동모들과 가티 그곳산에 올너가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도라오든중 급작히 이려나는 심장마비로 졸도되여 잇는것을 놀러갓든 아이들이 보고 즉시 읍내로 도립병원에서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졸도된시간이 오랜관계로 가련하게도 죽고마렷다 한다

【群山】 지난사일 추석날밤에 군산부내장재정(藏財町)에 거주하는 박귀녀(朴貴女)란 녀자가 쥐잡는약을 먹고 신음함으로 곳의사가 와서 응급수당을 하야 생명에는 관계업다는바 그는 본적남원 송렴엽(宋廉燁)이가 첩을 어더가지고 뜨로살림을 하며 자긔는 돌보지안음으로 이를 비관하야 버려오든바 중추가일을 당하야 남들은 명절빔을하야 닙고 일가단락의 자미를 보든이때 그리하지못하는 자긔신세를 극도로 비관하야 그와가티 자살을 꾀하엿든것이다

【淸安】 충북괴산군증평공립보통학교(曾坪公普校)에서는 지난오일에 추계대운동회를 개최하엿든바 마침 추석명절이엇슴으로 관람객이 무려칠천여명의 대성황을 이루어 래빈석에는 자리가 업서서 섯잇는사람이 머다수이엇슴에도 불구하고 기생들이 래빈석을 다수점령하야 온갖추태를 부리게되여서 안내자의 비난이 만타고 한다

白衣出入者에게 墨汁을뿌려

伊川板橋面의色衣獎勵

面民의非難藉藉

【伊川】 강원도이천군판교면(江原道伊川郡板橋面)에서는 지난사월분일부터 『백의출입자는 출입을 금한다』는 간판을 달고 면사무소에 흰옷을 입고 출입하는자에게는 검은먹물을 옷에다 뿌려준다는데 이러한 무지한 강제적색의장려에 일반은 비난이 자자하다 한다

武器품고越境 初着手가窃盜

【新義州】 지난삼십일오전세시경에 어떤자가 신의주진사정(新義州眞砂町) 신선양복점(新鮮洋服店)의 유리창을 뜻고 드러가 『레인코ー트』세개와 간복한벌과 농양복경주인 송문빈(宋文彬)

音樂、實演의밤

포리돌專屬歌手의

◇……本報讀者優待

【平壤】 『포리도ー르』축음긔주식회사 전속가수일행은 팔일오후팔시부터 금천대좌(金千代座)에서 『음악과 실연의 밤』을 개최키로 되엿든바 당일출연할 가수와 『프로그람』은 다음과 가트며 동회사특약점 천보당(天寶堂) 천화당(天和堂) 제일악긔점(第一樂器店)등에서 본회사를 대표하여 주최자로 되엿고 본사평양지국에서 후원하게 되엿다 평양출생으로 일약전속가수가 된 왕수복 김춘홍 김렴등을 위시하여 신일선 정재덕 나품심 왕평 박제행 김룡환군등 류행가수로 쟁쟁하는 명가수들의 실연과 연극이 잇슬터임으로 장관을 일울것인바 또한 본보독자에게는 우대를 하기로 되엿다

―프로그람―

◇一部
一、獨唱 鄭在德
一、獨唱 申一仙
一、스켓치 王平 羅品心
一、獨唱 王壽福
一、獨唱 金龍煥
一、獨唱 金春紅

◇二部
一、째즈演奏 포리도루 째스밴드團
一、獨唱 申一仙
一、獨唱 鄭觀德
一、獨唱 金春紅
一、獨唱 王壽福
一、獨唱 金龍煥
一、劇 王平 申一仙 朴齊行 羅品心

奉化의煙化된돈

一年間五萬餘圓

【奉化】 경북봉화군은 인구칠만을 가지고 구개면으로 논아잇는데 은고을인데 작년도의 춘양(春陽)연초판매소의 통계조사를 볼것가트면 전긔판매소의 구역 춘양、봉성、법전、명호、재산、소천(春陽、鳳城、法田、明湖、才山、小川)의 륙개면의 가장 인구주밀치못한 현면의 인구 사만칠천백륙십구명이 오만일천백구십오원이십사전의 담배를 피워 연긔로 소비하엿든데 그중에는 희연(囍煙)과 마고가 일위를 점령하엿스며 인구가 가장 복잡하고 주밀한 내성、상운、물야(乃城、祥雲、物野)삼개면은 영주연초판매소(榮州煙草販賣所)구역에 포함된곳인데 매월평균 이천원으로 일년동제 이만사천여원으로서 결국 칠만인구가 칠만오천여원이라는 거액을 흡연으로 소비한다는 것이라 한다

三歲女害殺害코 生肝을切食

癩病患者의所致

【倭館】 칠곡군 지천면 득산동에서 지난달이십이일에 참혹한 여아살인사건이 발생되여 왜관경찰서에서는 서원수십명이 수사에 몰두하여 삼일만에 진범인을 체포취조한결과 도남실(都南實)(二四)의 이녀(二女) 최우현(崔又賢)(三)을 김태호(金泰浩)의 처 손소분(孫小粉)(二三)이란 다병에 걸린 녀자가 녀아를 죽여 간장(肝臟)을 내여 시체는 뒷산에 던저둔것을 일일히 자백하엿다는바 지금까지 왜관경찰서에서 취조를 마치고 일건서류와 함께 불일내로 송국할 예정이라 한다

窃盜常習者 逐就縛

居昌署에서

【居昌】 경남거창(慶南居昌)읍에서는 근래 시게 귀금속등의 도난사건이 매일과가치 빈발하야 일반시민은 무한한 불안에 싸혀잇든중 지난구월십구일에 동읍금천동(金川洞)에 사는 백만석(白萬碩)(二五)을 유력한 혐의자로 인치하고 이래십여일간 엄중한 취조로 드듸여 그범죄사실을 자백하얏다는데 그의 범행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거창읍동동신용조(居昌邑東洞愼鏞祚)집에서 시가팔십여원의 금측시게외수컴과 동신삼재(愼三宰)집에서 『크로ー무』팔시게세개 회중시게한개 시가오십여원어치와 동하동(下洞) 리현보(李鉉輔)집에서 시가 이백여원의 금측시게외수컴과 동상동(上洞) 림종익(林鍾翊)집에서 시가일백원여의 금측시게외수컴과 동리 리덕(李德)집에서 금측시게와 사게 시가 일백삼십여원 기타 동리 문복환(文復煥) 라정수(羅貞洙)등집에 침입하야 다수물건을 절취하엿다고 한다

安東縣고무職工 工友自給會組織

【安東縣】 안동각고무공장직공을 총합하면 조선인만 약륙칠백명에 달하는데 하등회합이 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든바 금번 오의근(吳義根) 박항구(朴恒九) 김관준(金寬俊)외 수씨가 안동현공우자급회(工友自給會)를 조직하라고 지난사일 안동보육원에서 발긔인회를 열고 토의한결과 팔일오후륙시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여 발긔인측은 목하준비에 분망중이라 한다

史話 雲峴宮의봄 (一〇)

琴童 作
李山 畫

十一의二十四

풋담을 넘어서는 저각기사면으로 헤처서 다라낫다

홍선은 필주와 함께 동쪽 현노로 다라낫다

그러나 멋거름 가지 못해서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나 이 홍선과 필주의 뒤를 쫏차 온다 눈치빠른 그포교는 집뒤를 보려고 돌아오다가 도망하는 두사람을 보고 따르든 것이엇다

『이놈들 섯거라 잡아라』

포교는 한청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따라 왓다

홍선과 필주도 죽을 힘을 다하여 뛰엿다 기픈 밤의 골목에는 이 뛰고 쫏는 일군 때문에 때아닌 활국이 이러나고 잡집의 개들은 어즈러히 지젓다

홍선은 왜소한 사람이엇다 따러서 뛰는데도 속력이 빠르지 못하엿다

『에감! 어서! 자! 어서!』

필주가 련하여 손목을 잡면서 뛰엿지만 포교와의 새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젓다 이러다가는 필경 잡힐수박게는 업게 되엿다

그래엿다 사람이 죽을수가 생기면 살수가 생긴다고 숨이 턱에 거진 다아서 인제는 더 못뛰게끔 되여서 홍선의 눈에는 뉘집 뭣간(길로 문이 달린)이 하나 띄엇다 홍선은 필주에게 손목을 잡히운채 그리로 휘닥닥 뛰여 들어갓다 손목을 잡앗든 필주도 쓰을리어 들어갓다 들어가면서 홍선은 안에서 뭣간문을 잡거 버렷다

한거름 뒤떠러저 온 포교는 뭣간아페 서면서 벌서 걸린 문을 잡아 낙구엇다

『이놈들 나오너라 안나오면 문을 부신다』

위협을 하면서 문을 발길로 찻다 잡아 낙구엇다 하엿다

그 포교의 야료를 들으면서 홍선은 주머니를 뒤지기 엇다 그리고 돈을 한춤 써내여 듯기조케 털넉털넉 흔들엇다 이 돈소리에 포교의 야료가 좀 머졋다

『홍 열량이로군』

홍선은 밧게서도 틀림만 한 소리로 중얼거리고 그돈을 외인손에 바쳐야 쥐며、가만히 문걸쇠를 잡아벗겻다 그리고

『이놈 칼 나간다 칼 바더라』

하면서 문을 좀 열고 그틈으로 돈진손을 쑥 내밀엇다

포교는 홍선의 주먹을 바더 쥐엇다 그리고 조심조심히 돈을 쌕아서 제몸에 간직하엿다

포교에게 돈을 준뒤에 주먹을 도로 쉬움어 드리고인긴 뭣간 박그로 나갈 차부를 하라는데 버란간에 포교의 야료가 또 시작되엿다

『이놈을 이속에 숨은 줄을 번히 안다 썩 나오거라』

그러고는 문을 잡그지는 안헛는데도 불구하고 열 생각은 하지도 안코 연하여 요란스러히 두드리기만 하엿다 부서지라 하고……

홍선은 할일업시 필수에게 돌아서면서 큰소리로 말하엿다

『여보게 자네 주머니 톡톡 털어서 열닷냥만 내게』

한두번의 경험이 아닌 필주는 주머니를 열고 열닷냥을 세어서 홍선에게 드렷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또 머젓다

『주머니 톡톡 털엇나?』

『인전 한푼도 업습니다』

큰소리로 주고 바든뒤에 홍선은 필주의 돈을 바덧다 그리고 아까 모양으로 문을 조금 열면서

『이놈 총 나간다 총 바더라』

하면서 주먹을 쑥 내여 밀엇다

포교는 두번째의 돈을 또 바더서 몸에 간수하엿다 그런 뒤에

『에이 그런놈은 어듸로 도망갓는지 도모지 알수가 업군 용뺌 문놈들이다 이 내눈에서 버서나단 헐수 업단 인권 가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차차 저편으로 사라저 버렷다

그 뒤에 홍선과 필수는 뭣간에서 나왓다 그러고 포교가 간쪽으로 역시 어두움사이운데로 사라졋다

씸라會商의今後 多大한期待難望

倫敦會商의準備行爲만

【聯合씸라七日發】日本綿業家一行은日「만체스타」에赴하얏슴을「랑카시아」綿業代表「바라우」氏가提出한質問書의要旨는如左한事項을包含한것으로確明된다

一、日本이外國에輸出할綿業의程度如何

一、勞働時間如何

一、勞働組合의現狀如何

一、日本製品의低廉한것主要理由는무엇인가

라는데잇는데七日의會議에서倉田敬三氏는別項과如히日本綿業界의現狀을說明하야 反駁을加하얏는바씸라會議는 何等根本的問題에觸하고저안코一般的表面的問題만에終始하얏스며特殊的根本的問題에는 全然觸치안코日本側도日本經濟界의一般情勢의說明을行하야 基礎的知識을與하도록回答한바 英國側은이러이만하여商相의倫敦赴任을俟하야 日本綿業團代表一行을商相에紹介하고 根本的取極의締結을하고저하며「씸라」會商終了와지는 具體的問題에觸키를不好한으로日英兩國代表의綿業에對한 特殊問題는「씸라」會議에서는 이것을避하고一般的問題에就하야 倫敦에兩國의事情을說明하야 倫敦에開할本會議에對한素地를만들고저하는 明白한일이오從하야今後「씸라」會商에는重大한期待를가질수업슬것이다

倉田代表 英提議論駁

民間協議會서

【聯合씸라七日發】第三次日印民間協議會는 七日午前十一時부터「쉬실」호텔內日本代表協議室에서開會한바 第一回會議에서 英國側首席代表「씨·윌니암」「쿠레아리스」氏가 日本紡績業에對한各班의事項에對하야 質問하얏슴에對하야 七日의會議에서는 日本側首席代表倉田敬三氏가日本紡績의內情을說明하고 一一히 反駁을加하는同時에日英兩國綿業者의 見解의相違를明白히하얏다 卽

一、日本紡績業의生產費에關하야 日本人勞働者의生活程度는近年向上中이오 紡績業者는一般賃銀外에寄宿舍、經費家賃所等勞働者의生活의必要한設備를 完備하얏슴으로右施設을 考慮에너으면勞働者의賃銀은 英國에比하야낫부지안다

二、日本人勞働者의勞働時間은世界各國의 勞働時間에比하야遜色이업다

三、勵賃者의低落은一定의程度安定하고잇는 以上英國代表部의云爲와如히英國紡績業의恐怖는되지안는다

四、日本으로부터 綿製品輸入에對한割當數量의決定案은英國 代表의主張하는바이나日本綿業界는 生產能力過剩의狀態로對外輸出도 到底히現狀으로는滿足할수업고割當數量의 決定은承認할수업다

라하야日本綿業家의主張을宣明하고 完膚업시論破하얏는데同氏當日의演說은 日本代表部의溜飲을내인模樣이오會議를終하고나온日本代表의 顏色은極히明朗하얏다

倉田氏의「쿠레아리스」氏에對한反駁에對하야거듭英國代表로부터 質問이잇고七日은主로分散條의質問應答으로十一時五十分에散會하얏다

農民의惡化念慮 不買解決에苦心

【聯合씸라七日發】印度에서의 棉花採集은시작되는同時印棉不買에依한農民의 不利는去益顯著케되어 그證據로서最近日本代表部에 不買中止에對한嘆願書가入하야 日本代表部를크로옵게하얏고 또「씸라」棉花協會代表로부터는 晚餐을가티하고 懇談하자는招待가續到잇서七日「싼페이」로부터의入電에 依하면 印棉의市場은 前年이면採集期에入하야 例年이면買付에 紛忙하얏스며 또綿棉業者及印度政廳으로부터도 日本代表部에 去益要求하고 이대로간다면農民과日本不買에對한損害와의생각이印度側을受하야 會商의決解를促하는것이된다한다

日印通商條約 存續協定正文

九日東京、倫敦서發表

【聯合倫敦七日發】松平駐英大使及「싸이몬」英外相은 七日午後六時 日印通商條約存續協定에關한覺書를提出할터로 覺書의正文은來九日東京及倫敦에서同時에發表키로되엇다

公文交換

七日日英間에

【電通倫敦七日發】日印通商條約을一個月延長할公文交換은 七日午後一時英外務省에서「싸이몬」外相과日本松平大使間에行하야 其正文은九日午前東京及倫敦에서同時에發表키로되엇다

印度政廳要請 具體案提出

【聯合씸라七日發】印度政廳은 印度紡績業代表에게對하야 來十一日外지에 日印會商에關한 明確한具體案을政廳에提出하도록要請하얏다 右要請에基하야 印度當業者代表는七日朝來「쎄실」호텔一室에서 熟議凝議를繼續하얏는데 各代表間에議論이沸騰하야 容易히成案을得키에 至치못하얏다 但各代表는朝日外지에는 具體案을提出하야 會商을圓滿케하자는것에는合意하얏다한다

會商場所 首都로移轉

九日『쎈』氏提案

【聯合씸라七日發】印度政廳首席代表「쎈」商務長官은 來九日第六次會商에서「씸라」의會商은 十二日以後一週間休會되고來二十三日頃首都「뉴데리」에서 會商을繼續할것을提案하기로決定하얏다한다

製鐵設立委員會 七日第一回會合

【電通東京電話】日本製鐵株式會社設立委員會의 第一回會合은 七日午前十時부터商相官邸에서開催하고 協議한結果

一、旣決한取締役、會長(執行機關社長、副社長、常務取締役)二制度로할것

一、會社의代表權을 會長、社長에게附與할것

一、決算期日은 年一回로할것

大體右意見에一致되엇는데次回(二十日召集)更히 各委員間에研究를거듭하야 再審議키로하고 午後一時散會하얏다

鑛業朝鮮打診

金鑛、炭鑛、鐵鑛 鑛山熱益高調

八個月間爆發物輸移入額만 勿驚百二十餘萬圓

朝鮮의鑛業界는 昭和六年末의金輸出再禁止를契機로 遽然活氣를呈하야 爲先 金鑛業의勃興 發展을보앗고 그다음으로 鐵鑛業과炭鑛業의 殷盛을招來하는等 好轉傾向이 顯著하얏섯는바 이趨勢가 今年에入하야 產業時價 炭價와鐵價等이軍需工業勃興의影響을受하야 異常한昂騰을告한때문에 一段拍車를加하야 昨今의朝鮮內諸鑛業은近年稀有의盛況을呈하는中으로 鑛業의所要量으로보아도 這間의消息을알수잇는터이다 卽今年一月以降八月外지의 爆發物輸移入量을보면 火藥「따이나마이트」導火線其他를合하야百二十三萬六千三百二十二圓에達하야 昨年同期의七十九萬二千百八十七圓에比하면 實로五割以上의激增을示하얏다한다

京畿道의製炭組合 設立二十四處

京畿道에서는管內 木炭生產의 獎勵와統制、品質改善、規格統一을爲하야 業者主要生產地方의 林野所有者와 該地住民을網羅한製炭組合設立을 勸獎中인데 이미設立이된곳은 二十四組合에達하고 不遠에設立될 곳의 九組合을合하야 今年內에는적어도三十餘組合에達할豫想인데 目下各地에 開催中인製炭講習會는이獎勵에極力努力하며이번에山林會道支部에서는 需要期를압두고 此等生產品을 檢查하는同時에 全部販賣斡旋을行하야收益增加를 企圖하기로되엿다

山村副業으로 木工藝術品獎勵

林業課에서研究中

日本에서는 鄕土藝術로서 遊覽會를비롯하야 山村에서 木工品이만히 製作되는터이나 朝鮮에서는 木工藝術品이만치안음으로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山村副業으로서 木工品製作을 獎勵키로하고 目下林業課에서 硏究中이라한다

殷栗協同組合

組合員이八十餘名 資本一萬三千餘圓

【長淵】黃海道殷栗邑內有志들의發起下에昨年四月頃에殷栗協同組合을組織하고以來雜貨와布木을兼하야經營하여오든바그成績이매우良好하야今年六月頃의該邑內中央地에 宏壯한商店을新築하고移轉後組合長李讃永氏와理事黃承充氏外諸任員은晝夜를不顧하고努力한結果現在에組合員은八十名이나되고 總資本金은一萬三千餘圓에達하야殷栗에商權만은同協同組合에歸하

滿洲棉花處理

大連棉花會社代行

【電通奉天發】滿洲棉花協會는今夏以來 棉花處理方法으로審議中이든바 棉花會社創立外지 大連棉花會社로하야금 暫定的으로 處理代行機關으로삼아買上資金으로서 滿洲中央銀行은 年利八分으로서 六百五十萬圓을同社에融通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今年度 棉花收穫豫想은 實棉二千六百四十萬斤 繰棉 六百二十五萬斤(實棉의約二十五%) 價格三千百二十五萬圓이다

米穀問題 形勢觀望

朝取米取引員

朝鮮取引所 仁川支店期米部取引員組合에서는 六日會合을 갓고 決算案을 附議可決하고 米穀統制問題에 對하야도 何等의態度를 表明하라고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朝鮮米擁護期成會 朝鮮農會와는 處地가 다름으로 暫時 形勢를觀望키로 되엇다

京城內在庫量 九月末은減少

京城府內商銀外 五倉庫의九月末現在在庫高는 四萬二千七百三個(百八萬四千四百圓)로前月에比하야 八千四百八十一個(十一萬四千八百十一圓) 가減少되엿다

日本의夏秋蠶 收繭豫想增加

【商通東京電話】農林省發表에依하면 九月二十五日現在夏秋蠶收繭豫想高는 白繭四千六百四十七萬二千七百八十貫 黃繭百二十三萬九百二十貫計四千七百七十萬三千七百貫으로前年의實收에比하야 四百五十四萬四千八百四十一貫(一割五厘)의增加이다

日本製品이 中南米에進出

逐日增加하는形勢

【電通東京電話】日本製品의 進出을契機로하야 中南米諸國에 對하야는 日本과의貿易關係促進을爲하야 經濟使節團派遣等을派遣하고잇는데 特히「알젠친」과 如한것은最近東洋貿易株式會社를設置한다는 議論도나와 中南米地方은今後더욱日本과의新市場으로서 期待되여잇슴으로 商工省에서는來十日午前十時부터 工業俱樂部에各關係生產會社代表五十餘名을招集하고 中南米貿易進行에關하야懇談會를開催하고 今後의對策에對하야 協議를遂하기로되엿다

買換코저實施한 日本米買入數量

三十萬六千二百餘石

【電通東京電話】昭和八年九月農林省告示第三三六號에依한買換키爲하야實施한 日本米의買入數量은如左하다(單位石)

買入場所	買入數量
札幌	六五、四〇八
仙臺	三、一三五
酒田	二三、九三二
新潟	九二、九三四
金澤	一二〇、八六四
計	三〇六、二七三

三井物產에서 持株를公募

【商通東京電話】發表東洋「레온」株十萬株를 賣出키로決定한 三井物產에서는 今回更히所有株中의 十五萬株를 生絲圈에 賣却하고 八萬株를縁故募集에 依하야賣却을行키로 決定하얏는데 此等은모다三井信託을通하야賣出될것이오 右에依하야 物產持株約四十萬株中三十三萬株가公募될터로 三井信託에서는七日東洋「레온」株賣出을發表하얏다

米日爲替暴落 二十七弗七五仙

【聯合紐育七日發】七日의米日爲替는二十七弗七十五仙으로前日보다三十七仙의大暴落이엿다

殖銀產業貸出 八月末에增加

八月末現在의 殖銀公共產業貸出은件數三萬三千百五十四件 金額二億六千八百六十二萬一千七百四十八圓五十九錢으로 前月末에比하야 五百六十件 百三十六萬四千四十一圓八十九錢이增加인데이內容은아래와갓다

(以下單位千圓)

種別	金額
金融組合會貸付	二一、七八四
行政	二、三二八
敎化	二、二三五
衛生	四、三四四
交通運輸	四、〇一八
水利事業	七六、八一六
土地改良	一八、四二六
農業	七七、九七六
林業	二、九一
鹽業	八五六
畜產	一、一八一
工業	二、二四三
水產	三、六七九
電氣瓦斯	一、六二九
鐵道	一、三〇二
土木	一三、六一七
鑛業	一四三
漁業	一五、七〇〇
商業	一二、二三九
土地家屋 團體經理	七、六二六
其他	一八六

京城組銀 預金貸出

九月末에激增

【京城手形交換所調查】京城組合銀行九月末 帳末는預金一億二百九十四萬四千圓 貸出一億一千七十八萬八千圓으로 九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預金五百十萬七千圓 貸出三百六十六萬四千五百圓의增加를示하엿다 前年同期에比하면 預金二千四百九十四萬三千圓 貸出一千三百三十四萬八千圓의激增이다

토마도、팔푸 前年同樣契約

明年度의「토마도」「팔푸」生產實約數量에就하야서는 朝鮮纖維水產組合에서 輸入豫定數量一萬二千箱에對하야 總督府로부터 더關係道에對하야 照會中이든바 明年度도今年度同樣으로慶北道一萬箱 咸南道二千箱을 契約키로決定하얏는데 慶南道는生產數量에對하야 必要한時는 優先的으로輸入키로 諒解가成立되엇다한다

토마도・사진 萬二千箱

咸南慶北에割當

朝鮮名物의 하나인「토마도사진」은 今年은 一萬二千箱을製造하얏는데 明年度의製造豫想數에對하야 農林局으로부터 朝鮮纖維聯合會에 照會하야 明年度에는 一萬二千箱으로 同局에서는 慶北에一萬五百箱 咸南에一千五百箱을 各其割當하얏다한다

米倉在庫數量 十四萬六千石

米倉會社의二日現在의在庫米는十四萬六千三百七十一石으로前月에比하야約二十萬石의激減이다

釜山	四七、七九六
木浦	一八、九一三
群山	四六、二三三
仁川	二二、八一八
鎭南浦	一一、六二一

奉天管內在穀 粟、高粱이增加

【商通奉天特電】九月末現在의 奉天管內在貨는 新穀五千六百八十噸 其他二萬八千七百二十二噸 合計三萬五千四百噸으로 前年에比하야 一萬一千七百八十噸의增으로高粱、粟、大豆、豆粕等은 多少減少하엿다

四平街發送 特產物激減

【商通四平街特電】四平街驛에在한 九月中特產發送數量은 四百九十車로前年同期의七百四十七車에比하야 約五割三分의激減이다 主要한品目車數는左와如하다(單位車)

品目	昨年	今年
混保新大豆	四〇三	九三
同滿大豆	四二	六六
新大豆	九四	八七
滿大豆	六	一四
英豆	—	三
高粱	五八	四四
蕎麥	二六	二
苞米	二二	六八
蘇子	四	一
小米	二七	八一
元米	[illegible]	[illegible]
胡麻	一五	二〇

大連五品株式 土曜半休안어

【商通大連發電】大連五品株式部의土曜半休問題는過般來協議中이든바銀行이半休치안음으로今後一層地株取引을主로할關係上日本市場에追從치안코土曜日後場도立會키로決定하얏다

淺野洋灰滿洲進出

淺野洋灰는 滿洲國領土內에工場을建設하기로되엿는데 이는事業上 日本에在한洋灰統制聯合會의統制를 밧지안키때문에 大連에工場을가진 小野田洋灰로서는 드되여이를機會로 大連工場만聯合會의統制機關에서 脫退하기로決定하고 十二月의聯合會席上에서右脫退의說明을하고 淺野에對抗하야 自由行動을하기로되엇는데 結局將來는 滿洲에在한洋灰需要年三十五萬噸에對하야 小野田(三十萬噸)淺野(十三萬噸)滿洲鐵鞍山(十三萬噸)의三社가自由生產을할時는 供給數量五十六萬噸이되여 大過剩을來할으로 小野田의主張대로 三社와生產制限의協定을하고 日本의統制機關과提携할模樣이다

滿鐵終端港 埠頭作業問題

木村組서代行

總督府鐵道局淸津以遠의 滿鐵委任經營實現과共히 滿鐵에서는 羅津、雄基、淸津三港의埠頭作業을 大連同樣으로 直營을目的으로 目下 準備中이다 그리고此의作業代行은 當然 滿鐵北朝鮮鐵道管理局管內의指定運送取扱人인 朝鮮運送이代行하는것으로 世間一般에서는보며 또朝鮮運送自體도當然 實現할것으로豫期하는此際羅津에滿鐵諒解下로木村組가出現하야羅津을中心으로하는滿鐵朝鮮線終端港雄基、淸津의 三港에서하는滿鐵埠頭作業을代行하기로決定하고 目下淸津雄基에 支店新設을準備中이다 이때문에期待에어그러진朝鮮運送으로서는 이의眞相을調查하는同時에 對策을 講究中인바合同後의 新店 繳出과貨物의 移動減으로北朝鮮을唯一의活躍場所로하고諸種의 準備를하든朝運으로서는 致命傷으로 趨移가자못注目된다한다

日曜氣配 十月八日

◇期米 北鮮의新米卅五萬石買上은 申込이三、四倍에達한盛況으로決定數量은三十萬一千二百七十三石二斗이오이것의買上價格이低한과 米穀統制法을期待하고 農家가賣急치안음으로業態關된다 氣配頑强

◇株式 東新의五圓高를豫想하고 再次買直할것이오 十二、三日頃外지는好調를取할것이必然이라하야 當分東新中心의整理가困難視된다

大新 一三〇、〇〇 日產 一六三、〇〇

東新 二〇一、〇〇 鐘新 一三五、〇〇

平南의水產狀況(一)

金晩炯

平南地方은 西便에豐富한 海岸線을 領有하고잇다 따라서 西海岸과 大同江口를 利用하여 漁業과製鹽業이 盛行되고 잇다 製鹽業은 總督府廣梁灣出張所에서 天日鹽을經營하고잇는터임으로 大略만을 紹介하기로하고 爲先平南產業界에서 重要한地位를 占領하고잇는 漁業狀況을 조금詳細하게 紹介해보려고한다

一、水產業者戶口及人員 最近調查인 今年三月末日現在를大略적어보기로한다

平南의漁業은 漁業專業、養殖業、水產製造業、水產販賣業等 四部門으로 分類할수잇다 그러면 漁業을 專業으로하는戶數와人員數부터 次例로 表示하면다음과갓다 專業總戶數 一千四百八十七戶、人員은一千四百八十七名이오 養殖業者는 戶數六戶人員六人이오 水產製造業者는戶數三百八十七戶 人員三百八十七名이며 水產販賣業者는戶數四百七十九戶 人員四百七十七名에達하여 以上四部門의總計는戶數二千三百五十四戶 人員二千四百五十四人에 達하여 여기에다가 兼業者까지 加算을한다면 戶數와人員의잇서서 相當한增加를볼것이다 以上部門中에서 專業者一千四百八十七名은 直接海上第一線에서 狂波와싸호는사람들이오 陸上에서 가슴을조리며잇는家族外지合하면 四千名을超過한다고한다

가、漁業(專業)

		專業者	有業家族	無業家族	兼業者
朝鮮人	戶數	一、四四二	—	—	一、〇五八
	人口男	一、二五五	七五四	一、〇四八	一、九二三
	人口女	一八七	六七四	一、八二五	一、〇三三
日本人	戶數	四五	—	—	二
	人口男	四五	九	三四	二
	人口女	—	二	七三	—
總計	戶數	一、四八七	—	—	[illegible]
	人口男	一、三〇〇	七六三	一、〇八二	一、九二五
	人口女	一八七	六七六	一、八八八	一、〇三五

나、養殖業

		專業者	有業家族	無業家族	兼業者
朝鮮人	戶數	三	—	—	三
	人口男	三	—	—	—
	人口女	—	—	—	—
日本人	戶數	三	—	—	—
	人口男	三	—	—	—
	人口女	—	—	—	—
總計	戶數	六	—	—	三
	人口男	六	—	—	—
	人口女	—	—	—	—

다、水產製造業

		專業者	有業家族	無業家族	兼業者
朝鮮人	戶數	三八五	—	—	二七六
	人口男	三〇〇	三〇一	一九五	二六〇
	人口女	八五	一五八	一二三	一四八
日本人	戶數	二	—	—	—
	人口男	二	—	一	—
	人口女	—	一	—	—
總計	戶數	三八七	—	—	二七六
	人口男	三〇二	三〇一	一九六	二六〇
	人口女	八五	一五九	一二三	一四八

라、水產販賣業

		專業者	有業家族	無業家族	兼業者
朝鮮人	戶數	四五六	—	二	五二四
	人口男	三八七	三〇九	四五六	五七七
	人口女	六九	一〇五	五七〇	三三一
日本人	戶數	二三	—	—	九
	人口男	二三	一四	二六	八
	人口女	—	一六	二二	七
總計	戶數	四七九	—	二	五三三
	人口男	四一〇	三二三	四八二	五八五
	人口女	六九	一二一	五九二	三三八

二、漁具類別 漁業者戶口와 人員數는以上과갓다하야 海上第一線에서 漁業에從事하는 專業者만도一千五百名에達하고잇는터인데 이들 漁業漁夫들이使用하는漁具는如何한種類의것일가? 옛날에는 漁船이 不完全하엿슴은 勿論 漁具조차 幼稚하여서 危險도만코 漁獲도얼마안이되는 僅少한바잇섯스나 時代의進步와 人智의啓發을 따라서 漁船은 말할것도업지만 漁具도 稍히精巧하여졋스니 魚類에따라서 勿論 漁具도各異하며 其種類는實로 多種多樣에 亘하여잇다 따라서 價格에잇서서도 懸隔한差異가잇다한다 이제漁具別과 價格을數字的으로 表示하여본다면다음과갓다 平南漁夫의財產이라할수잇는 漁具의 價格만도 十餘萬圓에 達하는現狀으로朝鮮人漁業者는 漁具一萬八千五百五十三點 價格七萬六千二百十九圓 日本人漁業者는 漁具三百六十三點 價格二萬五千二百十六圓으로 平南의漁業은括目相對할만큼日復日發展途程에잇다

▲漁具의種類及價格

種類	朝鮮人數量	朝鮮人價格	日本人數量	日本人價格	合計數量	合計價格
地曳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揚繰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刺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流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魚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魚鮟鱇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柱木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中船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防簾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延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忽致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建干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弓船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掛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鰕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本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抄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桁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杖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遮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投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採介藻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叉手網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細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
總計	一八、五五三	七六、二一九	三六三	二五、二一六	一八、九一六	一〇一、五三五

林巨正傳 (196)

洪碧初 作 熊超 畫

배돌석이 一의十六

내가 비부노릇하게 되것이 작년는진봄일일세 우리게는진봄에는 로인도 홋것을납는데 그때 나는잔지ㅅ국가리된겹옷을 납고잇섯고 갓은 파립이고 망건은 파망이나 아무리 남의집비부쟁이라도 장가명색을 들려가며 그꼴을 하고야갈쑤잇나 만만한데한구대 가서 홋것한벌을 위겨다집으로 세고 또 달은데한군데 가서 청한관망을 억지로빌엇네 혼것을납고 관망을쓰고 이튼날식전에 김도사집에를 가는데 일즉이오란다고 너무일즉이가서 사랑머문도 아즉 열어노키전이데 대문박게 초가행랑두채가잇는데 한채는 비엇고 한채는 사람이들엇데 사람든 행랑아풀 왓다갓다 하자니까 사내가 내다보고

「당신이 배데청이아니요 이리 들어오시우」

하고 불르기에 대문열때까지 기다리고잇스랴고 그행랑에를 들것네

『대단 일즉 오섯구려』

하고 그사내의 인사하는말이 너무일즉온것을 웃는것가터서 나는

『어케 도사댁아씨께서 일직오라셧는데』

하고 우물쭈물 대답햇네

『입분안해를 엇게되어서 맘에 조켓구려』

『홀아비게 기집이생기니 조치안켓소』

『기집이라두 이만저만한기집이요 이읍네일판에 둘두업는 일색인데 댁에와서 비부들려구 몸살하는사람이 얼만지 몰으우 당신이 웅안에 떡바뎃소』

『글세 내가 쑴을 잘꾼모양인가보오』

『그러나 비부노릇하자면 일이만쏘』

『일이 무엇무엇이요』

『날마다하는일이 압뒤마당을 쓸구 나귀여물주구 푸성귀갓구구 심부름다니구 이댁안팎심부름이 여간만치안쏘』

이자삭아 케가할소임싸지내게다가 쓸어맥깁생각이잇서서 미리 이런말을하나부다 짐작하고 나는

『낭반임네 하라는대루하면고만아니겟소』

하고 대답하얏더니

『암 그러치요 그러치만 낭반이시키는일을 고지식하게 다하자면 오뉴월긴긴해에두 낫잠한숨 자지못하우 이때 도사ㅅ나리생전에는 일이지금버텨 몟배가며 드세서견되다못해서 도망한사람까지 잇섯소』

돌아간 김도사가 사람녀 엇더케 잘고싸다렵든지 편근 읍에까지 소문이나도록 유명해서 서울사람이 경망한사람을보고 에박(艾璞)이라고 별명지어 말하듯이 우리김해사람이 지금도잘고싸다려운사람을 보면 김도사라고 별명지어 말들하네

「돌아간 이때도사ㅅ나리가 유병싸한분미레선 하인들이 견듸기 어려웟슬께요」

「지금 서방님은 아버지와딸판 달러서 사람이 조흔편입니다」

「서방님이 어케는 댁에 안 기십듸다그려」

「하안 조참판댁에 가셧는데 내일모레나 오실께요」

「서방님두 안기신데 아씨맘대루 비부를 드리시요』

『아씨가 시집올께 다리구온 몸종이니까 아씨맘대루 비부를 드리시지요』

『아무리 아씨가 친정에서다리구온종이라두 서방님께서 언말슴이 업겟소』

『언말슴하면 소용잇소 그사람은 벌써 당신의안해가된것을 돌우째겟소 엇더케하겟소』

『나를 나가거라마라할는지누가아우』

『댁아씨한테 가서 내몰쥐어질으게 똑똑한냥반이요 서방님이 숨적못하우』

『그러키나하면 다행이요』

『아씨가 서방님안기신틈을타서 쌈잘하는배대청으로 소문이난 당신을 비부루 골라드리실제 서방님에와서 내쫏게하겟소』

『서방님이 안기신틈을 타서나를 비부루 골라드리신다니 무슨까닭이요』

『까닭은 나두몰으우 그러치만 서방님아기시면 배부를드리시드라두 당신을 골르실리는 만무하우』

『비부쟁이에 무슨까닭이 부럿구려』

『까닭이잇거나업거나 공선이입분안해만 데리구살게되면 고만아니요』

어쩌 사랑대문 열리는소리가나서 그하인이 안해와가치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그뒤를 딸하들어갓네